

植民地下朝鮮의 國際收支와 資本輸出入(1910—1945) (其Ⅱ)

安 秉 直

<目 次>	
I. 序	3. 貿易外收支에서 본 資本輸出入
II. 朝鮮經濟와 日本資本	4. 特殊輸出入에서 본 資本輸出入
1. 日本資本의 概念	IV. 日本資本의 投資形態
2. 日本資本의 輸入經路	1. 第1段階 1910~1918
3. 朝鮮經濟의 資金關係	2. 第2段階 1919~1930
III. 貿易 및 貿易外收支에서 본 日本資本	3. 第3段階 1931~1945 (以上 本號掲載)
1. 貿易에서 본 資本輸出入	V. 日本資本輸出入의 總評價
2. 金移動에서 본 資本輸出入 (以上 本論集 第VI卷 第4號掲載)	1. 日本資料에 의한 評價
	2. 朝鮮資料에 의한 評價
	3. 結 語

3. 貿易外收支에서 본 資本輸出入

앞서 商品 및 金銀移動을 통한 朝鮮의 對日本資本輸出入關係를 考察함에 있어서는 商品 및 金銀의 對日本去來에만 局限하지 않고 朝鮮의 全體의 對外去來에서 이를 把握하였다. 當時 朝鮮과 資本輸出入關係를 갖고 있었던 나라는 日本만에 局限되지 않았다. 中國 美國 및 其他 西歐諸國도 朝鮮에 資本을 輸出하였다. 그러나 이들 國家의 對朝鮮資本輸出量은 極少하였으며, (21) 또한 商品 및 金銀등 實物去來를 통한 資本의 輸出入關係는 비록 그것이 日本外 地域과의 去來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日本資本을 媒介로 하였던 것이므로 事實上 日本資本의 輸出入關係였다.

이와같이 商品 및 金銀의 移動을 原因으로 하는 朝鮮의 對日本資本輸出入關係를 對日本 去來에만 局限하지 않고 朝鮮의 全體의 對外去來에서 把握하는 것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日本外 國家들도 朝鮮과 資本輸出入關係를 갖고 있었으므로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 妥

(21) 京城商工會議所, 『朝鮮經濟雜誌』, 1929年 3月號, p. 6 所載, 「朝鮮에 있어서의 外國人의 經濟力」을 보면 商業에 있어서 Standard 石油會社 및 Texas 石油會社와 같은 油類販賣業을 除外하고 보면 큰 資本金을 갖고 있는 會社는 없었고 또 그 社數도 많지 않았다.

當한 것은 아니나 大體的 意味에서는 妥當性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²²⁾

그러나 貿易外收支를 통한 朝鮮의 對日本資本輸出入關係를 考察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方法이 그대로 妥當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前述한 商品去來中 日本外地域과의 去來, 主로 先進資本主義諸國과의 去來가 그 內容에 있어서 日本資本의 朝鮮進出이기는 하나 貿易計定上에는 先進資本主義諸國과의 關係만 나타낼 뿐이고 日本과의 關係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하여, 貿易外收支計定에서는 그러한 關係가 바로 日本과 朝鮮과의 關係로 나타나고 對先進資本主義國과의 關係는 捨象되며, 둘째 朝鮮의 貿易外收支統計는 대단히 稀貴한 便인데 日本과의 貿易外收支統計를 除外하면 日本外地域과의 그것은 거의 全無하여 日本과의 貿易外去來와 日本外地域과의 그것을 比較檢討하기가 事實上 어렵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朝鮮의 對日本資本去來가 貿易收支에 있어서는 間接적으로 나타나지만 貿易外收支에 있어서는 直接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對日本外地域 貿易外收支統計는 거의 全無하므로 日本經濟 bloc 인 支那 및 滿洲로부터 日本資本이 朝鮮으로 逆輸入되거나 朝鮮으로부터 이들 地域에 日本資本이 再輸出되는 것을 전혀 把握해 볼 수 없다. 그리고 朝鮮의 日本經濟 bloc 과의 資本去來가 얼마나 되는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것은 大體로 資本輸出的 이었다 하더라도 그 量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다.⁽²³⁾ 그러므로 貿易外收支를 통한 資本輸出入關係는 貿易去來를 통한 資本輸出入關係와는 달리 對日本貿易外收支에서만 把握코자 한다.

貿易外收支는 商品交易를 통한 貿易收支외의 收支 즉 資本去來와 用役去來에 의하여 發生하는 國際的 收支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므로 貿易外收支資料는 한 나라의 資本去來를 集約적으로 表現해 주는 가장 좋은 資料이다. 그러나 貿易外收支에 나타난 資本去來項目단으로써 한 나라의 資本輸出入關係의 內容을 完全히 說明할 수는 없다. 왜냐하

(22) 朝鮮銀行調査課, 『朝鮮에 있어서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관하여』는 商品 및 金銀等 實物去來를 原因으로 하는 朝鮮의 對日本資本輸出入關係를 朝鮮과 日本과의 去來에만 局限하여 考察하였다.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商品의 輸出超過 및 金銀의 輸出超過 등을 資本輸入으로 보는 바와 같은 誤謬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더 나아가 朝鮮의 對日本資本輸出入關係를 日本과의 去來에만 局限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見解가 妥當하다면 朝鮮의 日本地域外 商品 및 金銀의 去來에서 發生한 莫大한 量의 輸出入超過를 日本地域外에 대한 資本輸入으로 보든지 또는 資本輸出으로 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23) 朝鮮에 輸入된 日本資本中 滿洲로 再輸出되는 경우는 주로 鐵道建設 및 改良事業에 投資되는 公債募集에 의하여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이었다. 社債募集에 의한 東洋拓殖株式會社의 起債 資本은 本來부터 朝鮮으로 輸入되는 資本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資本의 再輸出로 볼 수 없다. 會社資本의 再輸出入關係는 朝鮮紡織株式會社의 滿洲 營國紡織에의 投資와 滿洲製粉株式會社의 朝鮮內 鎮南浦工場에의 投資와 같은 것이 있었으나 이러한 例는 많은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朝鮮總督府의 鐵道投資中 一部가 滿洲에 投資되고 있으므로 朝鮮과 滿洲와의 日本資本 再輸出入關係에 있어서는 朝鮮은 資本輸出的이었고 滿洲는 資本輸入의이었던 것 같다.

면 貿易外收支計定에 나타난 資本去來項目은 國際間的 貨幣的 債權債務關係를 나타낼 뿐 貨幣的 去來에 따르는 商品去來와 그 內容까지를 說明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短期的으로는 貿易外收支에 나타난 資本去來가 반드시 商品의 去來를 隨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外換收入을 擔保로 國內貨幣를 調達하는 바와 같은 現金借款은 外國에서 전혀 商品이나 用役의 供給을 받음이 없이 自國通貨의 增大를 통하여 國內의 商品이나 用役을 支配하게 된다. 이와같이 國際間的 資本去來는 貿易外收支計定에 記錄되지만 資本去來의 內容이 貿易外計定에 의하여 完全히 밝혀지지는 못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當時 朝鮮과 日本과의 關係는 獨立된 두 國民經濟間的 關係가 아니므로 上述한 諸原理는 많은 修正을 받게 된다. 植民地下의 朝鮮과 日本은 같은 「圓」 bloc 内の 同一經濟領域에 屬하고 있었으므로 兩經濟사이의 資本去來가 前述한 國際間的 資本去來처럼 먼저 貿易外去來로 나타나고 이것에 따라 商品의 移動이 일어나는 形態를 取하지 않고 直接商品去來로 나타나는 것이 많았으며, 이와는 反對로 商品이나 外換의 去來는 一切 일어나지 않고 計定上的 債權發生으로 自國貨幣의 調達 즉 朝鮮內 商品 및 資源에 대한 支配權의 獲得을 可能케 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므로 植民地下 朝鮮의 貿易外收支資料는 貿易外去來에서 發生하는 外換 및 外換證書의 收支를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朝鮮總督府, 朝鮮銀行, 朝鮮殖產銀行, 東洋拓殖株式會社 및 朝鮮金融組合聯合會 등 重要機關의 對日本債權債務의 發生이라든지 朝鮮에 本店이나 支店을 둔 日本人會社의 拂入資本金 增減등을 事後的으로 調査하여 이것을 貿易外收支로 發表하였을 것으로 推測된다.⁽²⁴⁾ 다시 말하면 植民地下 朝鮮의 貿易外收支計定上的 資本輸出入關係는 資本輸出入에 의한 外換 및 商品移動을 惹起시키지 않는, 말하자면 植民地下 朝鮮과 日本間的 單純한 債權債務關係를 나타내는 것이 많았다.

앞서指摘한 바와 같이 朝鮮의 貿易外收支資料는 극히 稀貴하기 때문에 이것을 年度別로 明示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資料가 許容하는 年度の 貿易外收支計定을 提示해 보면 다음의 第 5, 6, 7, 8表와 같다.

第 5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朝鮮의 貿易外收支는 大體로 資本去來로 構成되어 있다. 資本外去來라고 볼 수 있는 受取計定에 있어서의 事業 및 勞務利益, 海運關係收入, 鐵道關係收入, 保險關係收入과 日本在者朝鮮內消費는 受取計定總額의 10%未滿이며, 支拂計定에 있어서의 그것들은 支拂計定總額의 10%를 약간 上廻하고 있을 뿐이다.

(24) 다음의 各 貿易外收支項目의 檢討內容을 參照할 것.

<第5表>

對日本 貿易外收支明細表(1929年)

單位：千圓

受 取 計 定		支 拂 計 定	
計 定 項 目	金 額	計 定 項 目	金 額
1. 證券利子 및 配當	3,535	1. 證券利子 및 配當	40,894
2. 事業 및 勞務利益	2,943	2. 事業 및 勞務利益	20,688
3. 海運關係收入	3,583	3. 海運關係支拂	2,691
4. 鐵道關係收入	2,943	4. 鐵道關係支拂	5,901
5. 保險關係收入	4,057	5. 保險關係支拂	7,886
6. 日本在住者朝鮮內消費	2,536	6. 朝鮮在住者日本內消費	3,476
7. 總督府關係收入	35,342	7. 朝鮮總督府關係支出	689
8. 日本在住者朝鮮內放資	193,410	8. 日本在住者朝鮮內放資回收	105,592
9. 朝鮮在住者日本放資回收	12,451	9. 朝鮮在住者日本內放資	35,224
10. 其 他	4,247	10. 其 他	7,217
合 計	265,045	合 計	230,258

受取計定 - 支拂計定 = 34,787

資料：위의 第8表에서 作成함.

第6表는 이것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 주고 있다. 물론 同表는 資本去來만을 가지고 貿易外收支로 把握하고 있기 때문에 貿易外收支가 自然히 資本去來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資本去來만을 가지고 貿易外收支로 把握할 수 있었던 것은 植民地下 朝鮮의 貿易外收支內容이 資本去來가 支配的이었다는 事實을 反映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貿易外收支는 大體로 資本去來에 의하여 構成되어 있었으므로 貿易外收支의 變動은 大體로 資本輸出入의 變動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資本輸出入의 變動은 資本輸出入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朝鮮總督府關係收支, 公·社債에 의한 資本輸出入 및 會社資本의 輸入과 元利金 償還등의 變動에 依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貿易外收支計定을 통한 植民地下 朝鮮의 長期的 資本輸出入趨勢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1段階의 事情을 알려주는 直接的인 資料는 없으나 第1段階에 있어서는 資本輸入의 이었을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植民地下 朝鮮의 資本輸出入關係는 朝鮮總督府關係收入 및 支拂, 公·社債에 의한 資本輸出入과 日本會社資本의 輸入 및 元利金輸出에 依存하고 있었으므로 朝鮮總督府關係支拂, 公·社債의 償還에 의한 資本輸出, 日本 公·社債買入에 의한 資本輸出 및 朝鮮에 進出한 會社資本의 撤收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反面 朝鮮總督府關係收入, 公·社債에 의한 資本의 輸入 및 會社資本의 進出이 多少 있었던 第1段階에 있어서는 그 額數에 있어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大體로 資本輸入의 이었을 것이

<第 6 表>

對日本貿易外收支明細表(1941年)

單位：千圓

受 取 計 定		支 拂 計 定	
計 定 項 目	金 額	計 定 項 目	金 額
1. 對日本輸入金	405,907	1. 對日本投資金	835,951
1) 株式拂入徵收金	7,609	1) 貸 付 金	735
2) 借 入 金	50,550	2) 有價證券	835,213
3) 日本에서 發行한 社債	97,267	公 債	784,277
4) 預金 또는 金錢信託	250,481	社 債	50,640
2. 對日本投資回收 및 收益	248,691	株 式	296
1) 貸付金의 回收額	1,337	2. 對朝鮮投資回收 및 그 收益	122,751
2) 對日本公·社債償還額	240,210	1) 借入金의 返済	64,460
公 債	239,649	2) 對日本社債償還金	16,340
社 債	771	3) 利子配當金의 支拂	38,951
3) 對日本利子 및 配當金	4,721	借入金利子	3,238
貸付金利子	34	社債利子	23,334
社債利子	4,239	配 當 金	12,379
配 當 金	448		
4) 支店會社收益回送金	2,213		
3. 本店會社의 日本內資産處分	43,052		
合 計	697,650	合 計	958,702

支拂計定-受取計定=261,052

註：本表는 前總督府財政當局秘資料에 依據하여 作成된 것임.

資料：『朝鮮經濟統計要覽』(1949年), p. 189.

다. (25)

第 2 段階에 있어서는 資本輸出도 많았으나 이를 커버하고도 남는 資本輸入이 있었기 때문에 資本輸入의이었다. 즉 第 5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證券利子 및 配當金, 日本在住者 朝鮮內放資回收 및 朝鮮在住者 日本內放資等 朝鮮內日本資本의 元金回收와 公·社債利子 및 利益配當으로서 朝鮮으로부터 莫大한 資本이 日本으로 流出되기는 하였으나 反面 朝鮮總督府關係收入, 公·社債에 의한 日本資本輸入, 朝鮮內日本人會社의 對日借入金의 增大 및 朝鮮內日本人會社의 拂入資本金增加等으로 因하여 資本流出을 커버하고도 남는 資本輸入이 있었다. 이를 年度別로 보면 1929-32年 期間中 각각 34,787千圓, 123,734千圓, 72,308千圓 및 48,082千圓의 資本輸入이 있었다.

이와 같이 貿易外收支資料에 의하면 第 1 段階와 第 2 段階에서는 資本輸入的이었다. 그런데 第 1 段階와 第 2 段階에 걸쳐 日本資本이 얼마나 輸出되었는가를 보기 위하여 朝鮮銀行調査課의 『朝鮮에 있어서 内地資本流出入에 關하여』를 보면 第 7 表에서 보는 바와 같

(25) 朝鮮中央經濟會, 『朝鮮經濟資料』, 1921年 4月號, p. 36.

〈第 7 表〉

對日本貿易外收支明細表(1910~1931)

單位：千圓

受 取 額	
1. 總督府關係收入	626,695
2. 公債募集에 의한 流入	338,484
3. 恩賜公債 및 其他 債券利子收入	32,537
4. 社債募集에 의한 收入	539,902
5. 朝鮮에 本店을 가진 會社에 대한 日本出資	214,540
6. 日本에 本店을 가진 會社의 朝鮮內支店에 대한 日本出資	281,857
7. 銀行·會社의 日本으로부터의 借入	334,850
8. 朝鮮에 本店을 가진 會社의 日本에 있어서의 營業利益	-7,546
9. 出家人 其他 朝鮮에의 送金 및 持歸金	25,178
10. 日本艦船의 朝鮮에 있어서의 支出	19,525
11. 來遊來住者 및 寄港上陸船員의 朝鮮에서의 消費	56,137
12. 連帶貨客에 대하여 朝鮮鐵道가 日本으로부터 받은 運賃	21,909
13. 朝鮮에 本店을 가진 會社의 日本에서의 放資利益	21,168
14. 朝鮮船舶이 日本으로부터 받아야할 運賃	15,186
15. 年金恩給扶助料의 受入金	41,045
16. 朝鮮에 本店을 가진 會社의 日本에 대한 放資回收	146,221
17. 其 他	41,257
合 計	2,748,945
支 拂 額	
1. 公債償還	12,507
2. 朝鮮總督府關係支出	220,753
3. 社債 및 借入金의 償還	359,137
4. 社債 및 借入金利子支拂	154,257
5. 朝鮮本店會社出資利益	68,054
6. 日本本店會社放資利益	102,072
7. 日本保險會社의 朝鮮에 있어서의 收入保險料	82,248
8. 郵便 및 振替貯金の 增加額	81,850
9. 朝鮮에서 賣却한 勸業債券等の 代金	5,755
10. 朝鮮內會社에 대한 日本으로부터의 出資回收	8,148
11. 朝鮮內日本會社營業上의 投資回收	92,289
12. 輸入貨物에 대한 日本船舶의 運賃收入	18,425
13. 朝鮮船舶이 日本에서 支拂한 諸經費	16,924
14. 日本銀行 朝鮮內支店의 餘裕金廻送	10,508
15. 日本會社에 대한 朝鮮으로부터의 出資推算	45,022
16. 個人送金 및 持歸金	121,733
17. 朝鮮鐵道가 日本에 대하여 支拂한 貨客運賃	36,263
18. 朝鮮本店會社의 日本에 대한 放資	171,808
19. 其 他	36,300
合 計	1,634,053
差減受取超過	1,114,892

資料：朝鮮銀行調查部, 『朝鮮에 있어서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대하여』, pp. 10~3.

이 1910~31年間に 1,114,892千圓의 日本資本이 輸入된 것으로 推計되어 있다. 이를 段階別로 보면 1910~19年間に 朝鮮에 投下된 日本資本이 490,102千圓⁽²⁶⁾으로 評價되어 있으므로 이를 全部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것으로 假定한다면 第1段階에는 490,102千圓, 第2段階에는 624,790千圓의 日本資本이 각각 輸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第3段階에 있어서는 初期에는 資本輸入의이 었으나 後期에는 甚한 資本流出現象을 일으켜 全體的으로 資本流出의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第8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朝鮮의 對日本貿易外受取超過는 1930年 123,734千圓의 受取超過를 고비로 1931年 및 1932년에 累年 減少해 가고 있는 反面, 前掲 第6表에서는 1941년에는 261,052千圓이라는 未曾有의 支拂超過를 示顯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더 仔細히 檢討해 보면 第8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日本資本輸入의 主要項目인 朝鮮總督府關係收入 및 社債에 의한 資本輸入이 점차 減少해 가고 있으며, 累積的으로 增加趨勢에 있던 會社借入金도 그 利子 支出이 1932年の 9,765千圓으로부터 1941年の 3,238千圓(第6表 參照)으로 激減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同期間中 相當히 減少한 것으로 推測되는 한편 1941년에는 資本流出의 重要項目인 日本有價證券買入과 對朝鮮投資回收 및 그 利益金이 각각 835,213千圓 및 122,751千圓에 達하고 있다.

1941年の 朝鮮銀行統計가 얼마나 正確한 것인가는 疑問스러우나 1941年 日本의 對朝鮮投資回收 및 그 利益金은 1932年の 日本統計보다 低評價되고 있으며 朝鮮銀行의 『朝鮮經濟年報』(1948年版)에 의하면 1945年 8月 15日 現在 在朝鮮日本 公·社債 및 株券이 모두 10,617百萬圓⁽²⁷⁾인 것으로 보아 日本의 公·社債買入으로 因하여 1941년에 835,213千圓의 資本流出이 있었다는 것은 過大評價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와 같이 보면 第3段階에 있어서 貿易外收支를 통한 資本流出入關係를 明示해 줄 만한 資料는 없으나 資本輸入의 要因은 점차 減少하고 資本輸出의 要因은 莫大하였으므로 龍大한 資本流出이 있었던 것 같다.

貿易外收支計定에 의하여 植民地下 朝鮮의 對日本資本流出入關係를 보면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第1段階 및 第2段階에 있어서는 資本輸入의이고 第3段階에 있어서는 資本輸出의이다. 資本流出入關係를 集約的으로 表現하는 貿易外收支에 있어서의 이러한 現象은 植民地下 朝鮮의 對日本資本流出入關係를 가장 明快하게 說明해 주는 것 같지만 實際에

(26) 前掲書 參照.

(27) 朝鮮銀行調查部, 『朝鮮經濟年報』(1948年), p. I-279.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貿易外收支에 의한 資本流出入關係는 貿易收支를 통한 資本流出入關係와 맞지 않는다. 貿易收支를 통해서 보면 第1段階와 第3段階에 있어서는 資本輸入의이 있고 第2段階에 있어서는 資本輸出의이 있으나, 貿易外收支를 통해서 보면 前述한 바와 같이 第1段階 및 第2段階에 있어서도 資本輸入의이 있고 第3段階에 있어서는 資本輸出의이었다. 植民地下 朝鮮의 對日本資本流出入關係가 이처럼 貿易收支와 貿易外收支에서 서로 달리 表現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理由는 다음의 두가지 點에 있다. 첫째 貿易收支는 實物移動에 따른 貨幣的 收支이나 貿易外收支는 實物輸出入에 先行하는 貨幣的 債權·債務關係에 의한 收支임으로 兩收支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兩者가 다를 수 있는 可能性은 對等한 國家間的 去來인 경우 長期的으로는 外換輸出入에 의하여 商品輸出入이 일어날 것이므로 限界의 差異밖에 없을 것이나 植民地下 朝鮮과 日本처럼 植民國과 被植民國間에는 兩者間的 債權·債務의 成立이 外換이나 商品의 移動을 일으키지 않고 植民地에 있어서의 金融的 操作만으로 植民地의 商品 및 資源을 支配할 수 있는 信用이나 貨幣에 대한 支配可能性을 賦與한다. 後者の 경우에 있어서는 貿易收支와 貿易外收支를 통한 資本流出入이 반드시 一致할 수 없다.

둘째 貿易外收支資料는 그 信憑도가 極히 낮다. 植民地下 朝鮮과 日本과의 關係는 單一經濟領域內에 屬하고 있었던 두개의 經濟에 不過하였으므로 兩者間的 貿易外收支를 規則的으로 調査할 必要가 없었기 때문에 特殊한 目的에 따라 隨時로 調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當時에 作成된 貿易外收支資料는 大體로 事後調査 혹은 推計에 依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項目의 漏落 및 日本에 不利한 項目의 過少評價 등으로 그 信憑도가 매우 낮은 粗雜한 資料이다. (28)

以上과 같이 貿易收支를 통해서 본 各段階의 資本流出入과 貿易外收支를 통해서 본 그것이 서로 一致하지 않는 것은 貿易外收支資料의 信憑性이 낮다는 點과 貿易外收支計定에 나타나 있는 資本輸入의 性格이 두개의 獨立된 國家間에 있어서의 그것과 다르다는 點에 있다. 그러므로 貿易外收支의 眞正한 性格을 解明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點을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貿易外收支資料의 信憑性부터 檢討해 보기로 하자. 第8表는 朝鮮總督府 理財課에서 調査한 것으로서 一般的으로 信憑性이 있는 資料로 널리 利用되어 왔다. 同表는 受取

(28) 朝鮮銀行調査課, 『朝鮮에 있어서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관하여』, p. 10을 보면 “貿易外要因에 의한 資本流出入은 本府(朝鮮總督府)調査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關係官廳 및 民間으로부터의 回答에 根據하여 作成된 것으로서 여러가지 疑問의 餘地가 있다”고 指摘되어 있다.

〈第8表〉

對日本貿易外收支明細表

單位：千圓

受 取 計 定	1929	1930	1931	1932
1. 證券利子 及 配當	3,535	8,365	8,832	6,331
1) 國債利子	1,936	6,138	5,052	2,156
2) 社債利子	1,455	1,937	3,358	3,598
3) 株式配當	40	208	220	125
4) 貸付金利子 及 其他	102	82	202	452
2. 事業 及 勞務利益	2,943	3,052	2,546	4,454
1) 事業純益	36	165	27	2,070
2) 出稼人送金 及 持歸金	2,907	2,887	2,519	2,384
3. 海運關係收入	3,583	2,807	3,641	4,298
1) 貨物運賃	1,299	975	914	1,070
2) 旅客運賃	30	50	39	35
3) 傭船料	—	—	1	—
4) 日本船舶需要品代	695	622	544	518
5) " 修繕代	154	112	123	221
6) 噸稅 及 導船料	110	114	69	80
7) 船積物荷役費	—	521	1,280	1,568
8) 日本船舶會社支拂經費	1,295	413	671	806
4. 鐵道關係收入	2,943	2,682	2,440	2,787
1) 連帶貨物運賃	2,047	794	732	806
2) 連帶旅客運賃	790	1,888	1,708	1,981
3) 雜收入	106	—	—	—
5. 保險關係收入	4,057	4,308	13,729	4,189
6. 日本在住者朝鮮內消費	2,536	3,846	3,227	3,311
1) 來遊日本人消費	746	2,312	1,430	1,491
2) 來遊日本人攜帶金	404	294	1,245	1,080
3) 日本船員消費	1,246	1,018	642	742
4) 私費留學生消費	122	122	—	—
7. 總督府關係收入	35,342	35,690	31,968	27,878
8. 日本在住者朝鮮內放資	193,410	156,598	179,410	178,066
1) 公債 及 借入金	16,247	11,505	13,214	23,035
2) 地方債募集	847	1,283	15,000	12,808
3) 社債募集	99,663	55,163	37,481	20,014
4) 會社借入金	36,745	61,026	71,841	83,120
5) 株式賣入	18,793	4,887	5,024	8,370
6) 事業放資	21,115	22,934	36,850	31,112
9. 朝鮮在住者日本放資回收	12,451	23,469	37,412	39,465
1) 公債償還 及 賣渡	9,912	20,466	36,907	31,530
2) 地方債償還 及 賣渡	1,328	2,449	304	6,201
3) 株式賣渡	1,211	554	198	1,364
4) 事業放資回收	—	—	3	370
10. 其 他	4,247	4,834	5,549	6,235

1) 郵便貯金返戻	—	—	—	—
2) 簡易生命保險返戻	—	225	146	35
3) 年金 및 恩給	4,219	4,542	5,327	5,851
4) 布教費等	29	67	76	349
合計	265,045	245,651	288,754	277,014
支拂計定	1929	1930	1931	1932
1. 證券利子 및 配當	40,894	44,894	49,288	53,376
1) 國債利子	18,584	19,717	20,642	21,203
2) 地方債利子	569	333	286	906
3) 社債利子	12,199	12,854	13,531	14,447
4) 株式配當	5,203	5,797	5,526	8,055
5) 借金利子	4,339	6,693	9,303	9,765
2. 事業 및 勞務利益	20,688	10,126	10,725	10,094
1) 事業純益	15,830	5,556	5,977	5,398
2) 出稼人送金 및 持歸金	4,858	4,470	4,748	4,696
3. 海運關係支拂	2,691	1,075	1,346	1,423
1) 貨物運賃}	2,114	746	571	670
2) 旅客運賃}				
3) 備船料	256	91	367	404
4) 朝鮮船舶需要品代	82	8	26	19
5) 朝鮮船舶修繕代	186	86	115	104
6) 噸稅 및 導船料	25	1	7	1
7) 船積物荷役費	—	134	265	193
8) 朝鮮船舶會社支拂經費	29	—	—	32
4. 鐵道關係支拂	5,901	6,466	5,981	6,472
1) 連帶貨物運賃	1,937	3,178	1,864	2,219
2) 連帶旅客運賃	538	3,660	3,341	3,531
3) 雜支出	3,426	628	767	722
5. 保險關係支拂	7,886	10,884	10,540	11,991
1) 日本保險會社收入保險料	7,886	10,884	10,540	11,991
6. 朝鮮在住者日本消費	3,476	2,876	2,106	2,364
1) 日本旅行者消費	926	913	600	760
2) 日本移住者携帶金	539		329	345
3) 朝鮮船舶乘組員消費	791	727	10	10
4) 私費留學生消費	1,220	1,237	1,167	1,249
7. 總督府關係支出	689	1,022	1,153	1,107
8. 日本在住者朝鮮內放資回收	105,592	30,007	53,175	29,793
1) 國債償還	—	3,630	3,875	1,455
2) 地方債償還	968	1,193	841	402
3) 社債償還	76,601	12,921	32,429	6,761
4) 會社借入金返済	8,876	990	1,359	11,867
5) 株式買戻	1,203	2,804	719	1,083
6) 事業放資回收等	17,944	8,469	13,952	8,225
9. 朝鮮在住者日本內放資	35,224	18,390	38,110	38,334

1) 公債應募 및 購入	34,185	9,347	29,176	28,276
2) 地方債, 社債應募 및 購入	2,246	2,285	953	8,250
3) 株式應募 및 購入	4,595	4,843	3,482	1,732
4) 日本內事業放棄	4,098	1,915	4,495	576
10. 其 他	7,217	6,177	44,022	72,478
1) 郵便貯金剩餘回送金	4,943	3,705	40,829	68,915
2) 簡易生命保險剩餘金回送	173	1,582	2,205	2,654
3) 移入新聞紙代等	2,101	890	988	909
合 計	230,258	121,917	216,446	228,932

資料：京城商工會議所, 『經濟月報』1933年12月號 所載, 朝鮮總督府理財課, 『對日本 및 外國資金流出入調査』, pp 46-50,

計定 및 支拂決定이 다같이 10個 項目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중 主要資本關係項目은 各 各 4個 項目으로 되어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植民地下 朝鮮과 日本間의 資本輸出入關係는 大體로 이들 資本移動項目에 의하여 左右되고 있었으므로 이들 項目을 中心으로 資料의 信憑性을 檢討해 보자.

A. 受取計定

1) 證券利子 및 配當：證券利子 및 配當은 朝鮮內 會社 또는 個人이 日本政府의 國債, 日本內 會社의 社債 및 株式을 買入하든지 日本內 會社 또는 個人에게 貸付 및 投資함으로써 받는 利子 및 配當이다. 이는 朝鮮內 資本의 對日本輸出에 의하여 發生하는 資本果實인 바 1929~32年 期間中 年度別로 3,535千圓, 8,365千圓, 8,832千圓 및 6,331千圓에 各 各 達하여 그 變動의 幅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들이 朝鮮으로부터의 對日本 資本輸出을 正確히 反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931年에는 同 果實收入이 8,832千圓이므로 여기다가 當時의 公債의 平均利子率 5%⁽²⁹⁾를 適用하여 同年中 日本에 投資된 朝鮮의 資本量을 概算한다면 176,640千圓이 된다. 그러나 第7表에 의하면 同 資本量이 25,587(171,808-146,221)千圓으로 評價되어 있다. 當時 朝鮮內 日本人本店會社의 拂入資本金中 朝鮮外居住株主에 의하여 拂入된 것이 85.2%⁽³⁰⁾이였으므로 朝鮮內, 日本人本店會社의 株主는 大部分 日本에 居住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勘案한다면 朝鮮으로부터 日本으로 輸出된 資本의 果實中 朝鮮에 輸入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므로 朝鮮으로부터의 對日本資本輸出量은 前記 176,640千圓 혹은 25,587千圓의 規模를 훨씬 凌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角度를 달리하여 朝鮮으로부터 日本으로 輸出된 資本의 果實이 어느 一定期間동안

(29) 野村證券株式會社, 『公・私債年鑑』參照.

(30) 朝鮮殖産銀行調査課, 『殖産調査月報』, 1940年6月號, p. 33.

日本人株主의 손에 머물러 있다가 1929 年의 世界的 大不況期를 맞아 朝鮮內 會社의 資金 不足으로 다시 朝鮮으로 流入되었다면 이를 日本으로부터의 新規投資나 借入金과 어떻게 區別할 수 있었던 것인가? 더우기 第7表에는 自然人에 의한 朝鮮으로부터 日本으로의 資本輸出이 明示되어 있지 않다.

2) 朝鮮總督府關係收入: 이는 日本政府의 一般會計에서 支出되는 「朝鮮經營費」로서 軍費 및 行政費(補充金)로 構成되어 있는 것인데 行政費는 朝鮮總督府 特別會計歲入에 明白히 記錄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實際와 어긋남이 없다. 그러나 軍事費는 朝鮮總督府 特別會計歲入도 아니며 日本政府가 朝鮮에 駐在한 日本軍에 대하여 直接 支出한 經費이므로 朝鮮의 資本輸入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日本在住者朝鮮內放資: 이 項目은 公債 및 朝鮮總督府借入金, 地方債募集, 社債募集, 會社借入金, 株式賣渡와 事業放資로 構成되어 있다. 公債 및 借入金項目중 朝鮮總督府財政에 나타나 있는 것은 日本內引受分이므로 大體로 事實과 어긋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地方債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社債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朝鮮殖産銀行의 殖銀債와 東洋拓殖株式會社의 東拓債등이 重要한 內容을 갖는다. 兩債券은 주로 日本에서 引受되었으나 朝鮮에서 引受된 것도 相當額에 達하며⁽³¹⁾ 또한 拓殖債發行에 의한 收入金은 半以上이 朝鮮外 地域에서 貸出되었으므로⁽³²⁾ 이들을 單純히 合計한 것을 가지고 社債募集 項目으로 하였다면, 日本으로부터 朝鮮으로의 資本輸入을 過大評價한 것으로 보인다.

會社借入金은 朝鮮銀行을 비롯한 각 金融機關의 借入金과 一般會社의 借入金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朝鮮銀行의 借入金を 除外하고는 大體로 日本으로부터의 借入과 朝鮮內에서의 借入이 서로 얽혀져 있었으므로 이 兩者를 區分하기란 相當히 힘드는 일이고 또 그것을 每年 調査한다는 것도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外換收支에서 捕捉할 만한 機構도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項目은 粗雜하게 推算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第7表에서 처럼 「銀行·會社의 日本으로부터의 借入金」을 334,850 千圓이라고 推算한다는 것은 전혀 年센스에 屬한다. 株式賣渡項目도 마찬가지이다. 事業放資는 銀行 및 會社의 拂入資本金 增減에서 推算된 것 같다. 만약 이 推計가 正確하다고 하더라도 拂入資本金이 반드시 日本으로부터 輸入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配當 또는 積立金에서 拂入된 것도 있

(31) 朝鮮殖産銀行, 『朝鮮殖産銀行二十五年志』, p. 232 參照.

(32) 朝鮮銀行調査課, 『朝鮮에 있어서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관하여』, p. 41 에는 1931 年末 東拓債券 殘高 185,229 千圓中 朝鮮內貸出은 89,290 千圓이고, 朝鮮外貸出은 95,939 千圓으로 指摘되어 있으므로 東拓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中 朝鮮으로의 輸入은 50%未滿이 된다.

을 것이기 때문에 이 項目은 반드시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第7表에 의하면 1931년에 日本人의 朝鮮內 本店 및 支店會社의 出資金이 496,397千圓으로 되어 있는데 1918年の 同數値 161,282千圓을 빼면 1919~31年間に 335,115千圓의 日本資本이 輸入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이 項目에 나타난 金額을 전부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것이라고 看做하는 한편 1930年을 前後로 하여 日本資本이 積極적으로 朝鮮에 進出하였으므로 過大評價하여 1929年線인 20百萬圓의 日本資本이 1919-31年の 13年間 每年 輸入되었다고 하더라도 260百萬圓밖에 되지 않는다. 이 260百萬圓과 앞의 335,115千圓 사이에는 얼마나 큰 差異가 있는가? 따라서 資本輸入項目이 너무나 過大評價되어 있다.

4) 朝鮮在住者日本放資回收: 項目 1)에서는 朝鮮內 在住者日本放資가 公債, 社債, 株式의 買入 및 貸付로 構成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公債 및 株式의 買入과, 直接投資(事業放資)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社債의 買入 및 貸付라는 項目이 漏落되어 있는 反面, 直接投資項目이 追加되어 있다. 이러한 事實은 이 年度間에 社債의 償還 및 放賣와 貸付金の 回收가 없었고 또한 直接投資에 대한 利益金の 受取도 없었다고 解釋되어야 하는데 實際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事實은 統計의 粗雜性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 支拂計定

1) 證券利子 및 配當: 이 項目은 國債利子, 地方債利子, 社債利子, 株式配當 및 借入金利子로 構成되어 있다. 國債利子, 地方債利子 및 社債利子の 支拂은 公債 및 社債의 額數 및 그 利子率에 의하여 쉽사리 計算될 수 있는 것이므로 正確한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株式配當 및 借入金利子は 이와는 事情이 약간 다르다. 이들은 各機關 또는 會社의 配當 및 借入金利子支拂을 일일이 調査함으로써 밝혀질 性質의 것인데, 이러한 調査方法은 事實上 不可能하므로 資本金 및 借入金에다 配當率 및 借入利子率을 乘함으로써 이들의 額數를 求할 수 있다. 第7表에 의하면 日本人의 朝鮮內 本店 또는 支店의 出資金이 395,965 [(214,540+281,857)-(8,148+92,284)]千圓이므로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借入金を 이와 同額으로 보고 配當率 6%, 利子率 6%로 보면 1931年の 株式配當 및 借入金利子에 의한 朝鮮으로부터 日本으로의 資本流出額은 各各 23,758千圓 및 23,758千圓으로 된다. 그러나 第8表에는 1931年에 이들이 各各 5,526千圓 및 9,303千圓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第7表을 보면 日本人의 朝鮮內 本店 또는 支店會社의 利益金中 1910-31年の 20年동

안에 日本으로 輸出된 資本이 170,126(102,072+68,054)千圓이므로 이는 1931年 數値를 30年間 계속 輸出하는 것 보다도 많다. 그러므로 第8表에 나타나 있는 株式配當 및 借入金利子에 의한 日本으로의 資本輸出은 크게 低評價되어 있다. 만약 1931年의 이들 數字가 正確한 것이라면 日本으로 輸出되지 아니한 配當 및 利子는 朝鮮에 再投資되었을 것이므로 日本人의 朝鮮內 本社 또는 支店會社の 日本으로부터의 拂入資本金 및 借入金이 過大評價되게 된다. 말하자면 日本으로의 資本輸出이 過少評價되었거나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이 過大評價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朝鮮總督府關係支出：朝鮮總督府關係支出은 前述한 바와 같이 每年 朝鮮總督府 特別會計歲出에 公式의으로 記錄되는 것이므로 大體로 正確한 項目이라 볼 수 있다.

3) 日本在在者朝鮮內放資回收：이 項目은 國債, 地方債 및 社債의 償還, 會社借入金返濟, 株式買戻와 事業放資回收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國債, 地方債 및 社債의 償還額은 每年 記錄되는 公式資料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大體로 正確하다고 생각된다. 株式買戻는 資料關係上 그 正確性を 잘 알 수 없으나, 會社借入金の 返濟 및 事業放資回收에 의한 日本으로의 資本輸出內容은 過少評價되어 있다. 즉 會社借入금은 短期金融의 一形態이다. 그러므로 會社借入금은 累積的으로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朝鮮과 日本間에 不斷히 循環하는 資本이었다. 第7表에서 보는 것처럼 1931年 朝鮮內 銀行·會社の 日本으로부터의 借入金 334,850千圓中 未返濟額을 2億圓으로 보고, 第8表에 나타난 同年의 返濟額 1,359千圓은 同年의 特殊事情으로 너무 過少評價되었다고 보아 그것의 약 10倍에 該當하는 年平均 10百萬圓으로 보더라도 上記 2億圓은 20年間に 一循環하는 것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同年中 71,841千圓의 借入이 있었는데 反하여 1,359千圓밖에 償還하지 않았다는 것은 返濟額이 너무나 적게 評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事業放資 즉 日本人의 朝鮮內 本店 및 支店을 통하여 朝鮮으로 進出한 資本도 銀行·會社の 借入金과 같이 朝鮮과 日本間에 끊임없이 循環하고 있었다. 工業, 農業, 水産業 및 鑛業等 生産資本은 大體로 朝鮮內에 固定되는 性格을 가지고 있었으나 商業, 金融, 保險 및 其他 서어비스業등에 投資된 資本은 朝鮮과 日本間에 끊임없이 循環하면서 朝鮮의 資本을 流出시키는 役割을 擔當하고 있었다.⁽³³⁾ 그런데 第7表에서 보면 1910—31年間に 日本人의 朝鮮內 本店 및 支店會社에 대한 投資額은 496,397千圓인데 그 投資回收額은 投資額의 20%에 該當하는 100,439千圓에 不過한 한편 第8表에 의하면 1931年中 事業放資額

(33) 朝鮮殖産銀行調査部, 『殖銀調査月報』, 1940年 6月號, p. 40.

은 36,850千圓인데, 事業放資回收額은 13,952千圓으로서 回收額은 投資額의 약 38%에 不過한 事實을 알 수 있다.

1931年中 日本人의 朝鮮內 本店 및 支店會社에 대한 投資資本中 朝鮮에 固定되는 生産 資本과 朝鮮과 日本間에 循環하는 非生産資本과의 構成內容을 보면 本店會社의 경우는 1對 1⁽³⁴⁾, 支店會社의 경우는 3對 7⁽³⁵⁾로 각각 되어 있다.

그러므로 第7表에 의한 回收率 20%나 第8表에 의한 回收率 50%는 너무 적게 評價된 것 같다.

4) 朝鮮在住者 日本內放資: 이 項目은 朝鮮으로부터 日本으로의 資本輸出의 한 形態로서 日本의 國債, 地方債, 社債 및 株式의 應募와 買入 및 日本內 事業放資로 構成되어 있다. 이 項目을 日本에 流出된 資本의 果實受取形態인 受取計定の 項目 1과 比較해 보면 貸付金이 漏落되어 있다는 것을 發見하게 된다. 그리고 受取計定에서는 公債利子와 社債利子の 額數가 거의 同等한데 反하여 이 項目에서는 同額數가 地方債를 包含하는 社債應募 및 買入의 1/3 내지 1/5로 評價되어 있다. 이처럼 이 項目에서도 朝鮮으로부터 日本으로의 資本流出이 아주 낮게 評價되어 있음을 본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貿易外收支資料는 그 信憑도가 매우 낮을 뿐만아니라 日本으로부터 朝鮮으로의 資本輸出을 過大評價하고 대신 朝鮮으로부터 日本으로의 資本輸出을 過少評價하는 方向으로 作成되어 있다. 貿易外收支資料의 이와 같은 偏向은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은 公式資料에 의하여 大體로 把握될 수 있거나, 朝鮮에 投下된 日本資本의 現在額으로부터 推算될 수 있는 것이지만 朝鮮으로부터의 資本輸出은 이를 推算할 만한 直接的인 資料가 없기 때문에 극히 漠然한 推測에 의하여 推算된데 基因한다. 즉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量을 朝鮮에 投下된 日本資本 現在額에서 [推算하기 때문에 日本에서 導入된 量과 朝鮮에 있어서의 그 蓄積分이 함께 評價되는 關係로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은 過大評價되고 있다. 反面 朝鮮으로부터 日本으로의 資本輸出實績을 把握할 만한 資料가 없기 때문에 自然히 손쉽게 發見할 수 있는 資料에만 依存하여 그 實績을 評價하기 때문에 日本으로의 資本輸出은 過少評價되는 것이다. 例를 들어 日本人의 朝鮮內 支店會社에 대한 資本輸出入의 경우를 보면 第7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31年 期間中 貿易外收支를 통한 資本輸入額은 281,857千圓이고, 資本回收額은 50百萬圓 程度이므로⁽³⁶⁾ 資本輸入 現在額은 231,857千圓이다. 그런데 1931年中 日本人 朝鮮內支店會社의 朝鮮內投

(34) 朝鮮銀行調査課, 『朝鮮에 있어서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관하여』, p. 35.

(35) 朝鮮殖産銀行調査部, 『殖産調査月報』, 1940年 6月號, p. 41.

資額(日本으로부터의 輸入額+朝鮮에서의 蓄積分)은 95,375 千圓에 不過하다.

그리고 朝鮮에 投下된 資本量 95,375 千圓中에는 朝鮮에서 蓄積된 分도 包含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貿易外收支計定을 통한 資本輸入額과 實際로 朝鮮에 投下되는 資本額과는 얼마나 큰 距離가 있는가? 이러한 現象은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을 過大評價하고 朝鮮으로부터의 資本輸出을 過少評價한 結果 나타난 하나의 例로 보인다.

貿易外收支資料의 信憑性缺如는 貿易外收支資料의 이러한 偏向에만 基因하는 것이 아니다. 朝鮮에서 日本으로 莫大한 資本을 輸出하면서도 貿易外收支計定에서 漏落된 項目들이 많다. 이러한 項目은 相當히 많을 것이지만 그중에서 重要的 것을 例擧해 보면 朝鮮內 銀行預金の 日本으로의 回送, 郵便貯金 및 그 剩餘金の 日本으로의 回送 그리고 保險料 및 그 剩餘金の 日本으로의 回送 등이 있다.⁽³⁷⁾ 이러한 項目들은 初期에 있어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後期에 이르러서는 莫大한 額에 達하였을 것으로 推測된다.

다음으로 日本으로부터 輸入한 資本의 性格을 檢討해 보자.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은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 朝鮮總督府 및 地方公共團體의 公債募集에 의한 輸入, 特殊會社, 銀行의 社債募集에 의한 輸入, 日本人會社資本의 進出 및 銀行·會社의 借入金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들은 大體로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을 나타내는 貿

(36) 日本人의 朝鮮內 本店 및 支店の 出資回收額은 100,437 千圓이므로 그것의 약 半을 支店會社의 出資回收額으로 假定한다.

(37) 朝鮮殖産銀行調査部, 『殖銀調査月報』, 1940年 6月號 p. 40 을 보면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日本 本店會社가 朝鮮內에 支店을 設置한 것은 昭和 13年末 그 社數 156 (店舖工場數가 아니다)으로 算出된다. 그 業種別 社數는 金融業 8, 商業 38, 工業 36, 農林業 19, 水産業 5, 鑛業 8, 運輸業 7, 保險業 18, 其他 17로 각각 되어 있으며 이들 本店會社의 總拂入資本金은 1,095 百萬圓에 達하는 高額이었으나 그 鮮內投資額이 얼마나 되었는가는 잘 알 수 없다. 이들 會社中에서 그 業態로 보아 日本資金의 鮮內放資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鮮內資金을 蒐集하여 日本에 送金하는 性質을 가진 것까지도 있다. 例를 들면 或者의 金融業者 鮮內蒐集豫金は 그 鮮內貸出을 超過하는 것도 있으며 또 保險會社 같은 것은 營業進前에 따라 保險料收入 및 나아가 保險積立金 같은 것을 日本으로 送金할 수 있을 정도의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商業어음 같은 것은 그 商品의 鮮內輸入 즉 朝鮮의 對日本貿易形成으로 放資될 것이나 이것은 그 放資가 항상 循環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日本人官僚學者 鈴木武雄는 『朝鮮金融論十講』 pp. 144~145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다음으로 內地支店銀行인데 여기에서만은 항상 預金과 貸出의 balance에 있어서 資金의 餘裕金を 보이고 있다. 즉 昭和 11年末에는 預金 46,947 千圓에 대하여 貸出 24,826 千圓, 昭和 12年末에는 預金 54,823 千圓에 대하여 貸出 32,862 千圓, 同 13年末에는 預金 65,305 千圓에 대하여 貸出 46,651 千圓, 同 14年 上半期末에는 豫金 74,400 千圓에 대하여 貸出 51,664 千圓이라고 하는 狀態로서 그 差額은 各年末에 있어서 22 百萬圓(昭和 11年末) 내지 18 百萬圓(昭和 13年末)에 達하고 있는 것이다. 이 相當額에 이르는 餘裕金은 有價證券의 購入에 充當된 것도 있을 것이나 그 有價證券은 반드시 朝鮮內證券에만 限하지 않고 때때로 日本 本店에 回送되는 部分이 相當히 많다고 보아도 틀림없다. 즉 支店銀行에 대해서는 이 무렵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나 일찍이 「預金吸收機關」이라고 하는 非難도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易外收支計定上の 重要項目들이나 이들이 반드시 日本으로부터의 輸入資本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서도指摘한 바와 같이 日本會社資本의 進出은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과 그것에 의한 國內蓄積分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銀行·會社의 借入金도 그 性質이 循環의일 뿐만 아니라 朝鮮內借入金과 日本으로부터의 借入金이 混淆되어 있다. 이와 같이 資本輸入的 側面에서 볼 때 그 性格이 애매한 이 두 項目을 除外하면 나머지 重要한 資本輸入項目에는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 朝鮮總督府 및 地方公共團體의 公債募集에 의한 輸入 및 株式會社·銀行의 社債募集에 의한 輸入등이 包含된다. 이들은 大體로 正確히 把握된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項目이다.

이들 項目에 의한 資本輸入은 國際資本移動面에서 볼때 直接投資의 形態가 아니고 補助金 또는 貸付資本의 形態이다. 그러므로 이들 項目에 의한 資本輸入은 實物의 直接的 進出을 보이기 以前에 資本輸出國과 輸入國間에 一但 貨幣形態로서의 貸借關係가 成立한다. 이러한 貨幣形態로서의 貸借關係는 正常的인 國際經濟關係 즉 두개의 獨立한 國家間的 經濟關係에 있어서는 어느 一定期間內에 貨幣的 貸借關係에 따른 商品交易關係가 發生하는 것이나, 植民國과 被植民國間처럼 宗主·從屬의 關係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具體的으로 解明하기 위하여 이들 項目을 통한 資本의 輸入節次를 檢討해 보자. (38)

累言한 바와 같이 이들 資本輸入項目은 朝鮮總督府關係收入, 朝鮮總督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公債募集에 의한 輸入과 特殊會社·銀行의 社債募集에 의한 輸入등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중 朝鮮總督府關係收入을 除外하면, 나머지는 公·社債發行에 의한 貸付資本의 輸入이다. 貸付資本의 輸入중 가장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는 朝鮮殖産銀行의 社債發行的 경우를 中心으로한 資本의 輸入節次는 다음과 같다.

殖銀이 日本에서 社債를 募集할 경우, 日本大藏省預金部, 日本內 銀行 및 證券會社 또는 一般民間이 이를 引受한다. (39) 그리고 東洋拓殖株式會社의 社債中 日本內 引受分の 引受處는 明確하지 않으나 大體로 朝鮮殖産銀行의 그것과 同一한 過程을 밟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朝鮮總督府의 公債는 大體로 日本政府의 一般會計 및 大藏省預金部에서 引受되었다. (40)

(38) 이들 項目을 통한 資本輸入節次에 관한 記錄은 稀貴하며 求得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朝鮮銀行 發券課나 朝鮮殖産銀行 證券課에 勤務한 바 있던 人士들의 口傳을 基礎로 이를 叙述한다.

(39) 朝鮮殖産銀行, 『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 p. 237-247.

(40) 『朝鮮總督府統計年報』를 參照할 것.

朝鮮殖産銀行의 경우 社債發行에 의한 收入金은 殖銀 大阪出張員事務所에 集中되었다.⁽⁴¹⁾ 한편 東洋拓殖株式會社의 경우는 아마 同社 東京本店에 集中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朝鮮總督府의 경우, 그것은 日本政府의 一般會計 및 大藏省預金部計定에 記錄되었을 것이다.⁽⁴²⁾

이와 같이 貿易外收支에 있어서의 資本輸出入은 一次的으로 本支店間이나 또는 朝鮮의 어떤 機關과 이와 關聯된 日本의 어떤 機關間에 나타난 計定上の 債券·債務關係에 의하여 把握되었던 것이며, 이 以後段階에 發生하는 實際的인 資本輸出入關係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日本內에서 募集된 資本의 用途와 그 輸入經路는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公·私債의 元利金償還을 위하여 使用된 것이 있다. 朝鮮各機關發行 日本引受 公·社債는 合邦以前부터 每年 累積的으로 增加하여 왔기 때문에 公·社債發行額中 以前에 發行된 公·社債의 元利金支拂을 위하여 發行된 것이 相當額에 達한다. 이 元利金償還을 위해 發行된 公·社債에 의한 輸入資金은 日本內에서 公·社債의 元利金支拂에 充當되고 朝鮮으로 輸入되지는 않았다. 둘째로 朝鮮內 流通資金需要를 充當하기 위한 貨幣의 輸入이 있었다. 이러한 貨幣輸入에는 日本銀行券을 直接輸入하는 일도 있었지만 大體로 朝鮮銀行 東京支店에 日本銀行券을 入金하여 送金換方式을 통하여 朝鮮銀行本店에서 朝鮮銀行券으로 引出하였다.⁽⁴³⁾ 日本銀行券도 法貨로서 朝鮮에서 自由로이 通用될 수가 있었으나 朝鮮銀行券 發行準備 및 一般銀行의 支拂準備로 利用되었을 뿐 一般去來에서 通用되는 일은 드문 일이었으므로⁽⁴⁴⁾ 朝鮮內 流通資金의 需要充足을 위해서는 大體로 朝鮮銀行 日本內各支店에 日本銀行券을 預置하고 朝鮮銀行本店에서 朝鮮銀行券으로 充當시킨 것

(41) 朝鮮殖産銀行, 『朝鮮殖産銀行 二十年志』, p. 257.

(42) 朝鮮銀行調査課, 『朝鮮에 있어서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關하여』, p. 22를 보면 貿易外收支와 外換收支의 差異를 說明하면서 “貿易外收支가 一律的으로 銀行을 經由한다면 外換受拂을 惹起시킨 것을 貿易外收支로부터 들고, 이것을 貿易額과 合算함으로써 原因側으로부터 참다운 外換受拂이 推定될 것이나 貿易外收支中에는 銀行을 經由하는 것 외에 本支店帳簿振替가 있기 때문에 이의 推定도 不可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解釋하면 貿易外收支 中에는 實際로 外換受拂은 發生하지 않았는데 朝鮮과 日本과의 債權, 債務關係의 發生으로 外換受拂이 일어난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公·社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出入에 있어서도 本支店間 計定上の 變動으로서 貿易外計定上에는 資本의 輸出入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理解된다.

(43) 鈴木武雄, 『朝鮮金融論十講』, p. 40을 보면 日本銀行券과 朝鮮銀行券은 平價(par)로 自由로이 無制限 交換되고 있었으므로 日本銀行券과 朝鮮銀行券의 交換에는 아무런 障礙가 없었다.

(44) 朝鮮銀行調査課, 『朝鮮事情』(大正 13年 2月 下半號), p. 11에 의하면 1923年末 朝鮮內流通貨幣高 90,714,748圓은 朝鮮銀行券 80,760,042圓, 銀貨 5,678,538圓, 白銅貨 3,439,205圓, 및 靑銅貨 836,963圓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므로 日本銀行이 發行한 貨幣는 銀貨, 白銅貨 및 靑銅貨와 같은 補助貨幣中에 약간 섞여 있을 뿐 日銀紙幣는 朝鮮에서 거의 通用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一般的인 經路였을 것이다.

세째로 公・社債元利金으로 支拂되든지 또는 貨幣의 形態로 朝鮮에 輸入되지 않고 日本內 支店計定이나 關係機關內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性格의 것이었다. 즉 公・社債發行에 의한 受入資金中 一部는 日本에서나 其他 外國으로부터 實物資本을 購入하기 위하여 外換으로서 남아 있어야 하고 이는 公・社債發行을 통한 實物資本의 輸入이란 性格을 띠는 것이다.

이와 같이 朝鮮의 公・社債發行에 의한 日本에 있어서의 收入金은 公・社債元利金の 償還 및 實物資本의 輸入과 같이 日本에 대한 債務를 辨濟한다든가 實物資本을 輸入함으로써 貨幣의 輸入을 惹起시키지 않는 것과 朝鮮內 流通資金不足을 充足시키기 위한 純粹한 貨幣資本의 輸入만을 惹起시킨 것으로 大別해 볼 수 있다. 前者는 獨立한 國家間的 正常的 資本輸入關係이지만 後者는 植民國과 植民地間的 特殊關係이다. 이러한 植民國과 植民地間的 特殊關係가 資本輸入이란 名目으로 植民地の 負債를 累積적으로 增加시키는 한편 아무런 代價도 支拂하지 않고 植民國政府와 그의 資本家들이 植民地の 資源과 勞動을 支配할 수 있는 金融的 制度를 可能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植民地の 貨幣供給源인 植民地中央銀行의 發券制度和 關係되는 것이다.

朝鮮의 貨幣供給源은 朝鮮銀行이었다. 朝鮮銀行은 朝鮮의 中央銀行이면서도 朝鮮總督府에 所屬한 機關이 아니고 日本大藏省豫金部の 指示 監督을 받는 日本銀行의 支配下에 있었다. 그러므로 朝鮮銀行은 日本銀行과 전혀 同一한 貨幣制度下에서 朝鮮內的 貨幣供給을 擔當하였다. 그러나 朝鮮銀行의 發行準備制度和 日本銀行의 그것間에는 相當한 差異가 있었다. 즉 1924年 7月 改正된 朝鮮銀行法 第22條⁽⁴⁵⁾에 의하면 朝鮮銀行의 支拂準備에는 「正貨準備」「保證準備」 및 「限外準備」가 있었다. 이 중 正貨準備는 日本銀行에 있어서는 金貨 또는 地金銀으로 構成되나 朝鮮銀行의 경우는 金貨, 地金銀 및 日本貨幣로 構成되어 있다.

이와 같이 朝鮮銀行의 支拂準備制度에 「正貨準備」로서 日本銀行券을 許容하였다는 事實이 바로 朝鮮이 貸付資本을 輸入할 경우, 實物資本의 뒷받침이 없는 單純한 貨幣資本을 輸入할 수 있는 根據로 된 것 같다.⁽⁴⁶⁾ 물론 朝鮮銀行의 「正貨準備」로서의 日本銀行券은

(45) 朝鮮銀行, 『朝鮮銀行二十五年史』, p. 252.

(46) 鈴木武雄, 『朝鮮金融論十講』, p. 63을 보면 “事實 朝鮮의 正貨準備는 과거 현재를 통하여 日銀券이 壓倒적으로 큰 部分을 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朝鮮銀行의 正貨準備는 日銀券으로 看做하여도 좋을 것이다.

公·社債發行에 의한 貨幣資本의 輸入에만 依存하였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朝鮮銀行券發行의 增加를 要求한 것도 朝鮮內 各金融機關 및 朝鮮總督府의 貨幣需要에만 依存하였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公·社債發行에 의한 日本貨幣資本의 輸入과 朝鮮內 各金融機關 및 朝鮮總督府의 貨幣需要가 日本으로부터의 貨幣資本輸入과 朝鮮銀行券 增發要因에 가장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既述한 바와 같이 貿易收支를 통해서 보면 第1段階 및 第3段階에서는 資本輸入의이었고 第2段階에서는 資本輸出의이었던 反面, 貿易外收支를 통해서 보면 第1段階 및 第2段階에서는 資本輸入의이었고 第3段階에서는 資本輸出의이었다. 이와 같이 貿易收支와 貿易外收支를 통해서 본 朝鮮의 對日本資本輸出入의 性格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貿易外資料가 朝鮮으로부터의 資本輸出을 過少評價하고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을 過大評價하고 있는 點과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中에는 實物資本의 뒷받침이 없는 單純한 貨幣資本의 輸入이 많았다는 事實에 基因한다. 그러나 貿易收支와 貿易外收支를 통해서 본 朝鮮의 對日本資本輸出入의 性格이 서로 다르다는 事實이 貿易外收支側의 事情에만 基因하는 것 같지는 않다. 貿易收支는 國家間的 모든 商品의 流出入을 包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軍需物資輸出入과 같은 特殊去來는 貿易收支에 包含되지 않는 것이 普通이며 이러한 貿易收支의 性格으로 말미암아 貿易收支資料와 貿易外收資料를 통해서 본 朝鮮과 日本間的 資本輸出入밸란스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 貿易收支와 貿易外收支를 綜合하여, 朝鮮과 日本과의 資本輸出入밸란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段階에 있어서는 貿易收支와 貿易外收支의 밸란스가 다같이 資本輸入의이다. 이에 대해서는 IV에서 說明하겠지만 앞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이 時期에 鐵道, 港灣 및 道路등을 中心으로 하는 社會間接資本이 急激히 形成되었고 輸入品中 資本財輸入을 爲主로 한 歐美先進資本主義에 대한 輸入依存率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輸出入總額에 대한 輸入超過率이 가장 높았다는 點으로부터 이 時期에는 資本輸出入밸란스가 資本輸入의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時期가 資本輸入의이었다고 해서 決코 生産의 增大를 통한 國民厚生의 增大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時期에는 農民을 土地로부터 追放하고 農村手工業을 徹底하게 破壞함으로써 朝鮮人의 貧困의 增大를 가져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日本人의 朝鮮土地支配의 擴大 및 朝鮮支配의 基礎가 되는 그들의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이라는 強權의 國家權力에 의한 原始資本이 蓄積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 時期에는 朝鮮人 富의 減少 및 日本人富의 增大가 日本의 國家權力에 의하여 가장 暴力的으로 進行되었다.

第2段階에 있어서는 貿易收支에서는 資本輸出의이었고 貿易外收支에서는 資本輸入의이었다. 이러한 兩收支間의 資本輸出入밸란스가 서로 다른 點을 어떻게 解釋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指摘된 바와 같이 여기에는 貿易收支側의 原因과 貿易外收支側의 原因이 同時에 있다. 前者의 原因으로는 貿易統計上 漁獲物의 海上引渡, 大量의 金銀密輸出, 日本人 來遊者와 在朝鮮日本人歸還者의 工產物搬出등이 漏落되어 輸出이 過少評價되고 있다는 點과 軍需物資輸出入과 같은 特殊輸出入은 貿易統計에서 除外되어 있다는 點등을 指摘할 수 있고, 後者の 原因으로는 受取의 過大評價와 支拂의 過少評價, 實物資本의 輸入이 없는 日本貨幣의 直接輸入 및 單純한 朝鮮銀行券의 發行增加 등이指摘된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側面의 原因을 綜合해 보면 公式資料에 나타난 貿易收支는 入超로 나타나 있지만 前記 諸要因을 勘案해 볼때 반드시 入超라고 볼 수는 없는 同時에 貿易外收支는 반드시 實物資本의 移動과 一致하지 않았다.

이 時期에는 會社資本도 크게 增加한 바가 없었으며,⁽⁴⁷⁾ 뚜렷한 社會間接資本의 增加도 없었던 反面 特記할 事業이라고 한다면 「朝鮮米增殖計劃」에 의한 米穀輸出資本으로서의 流通資本增加의 以外 朝鮮米의 對日本輸出增大뿐이었다. 그러므로 이 時期에는 大體로 資本輸出의이었다고 볼 수 있다.

第3段階에 있어서는 貿易收支上으로는 資本輸入의이었고 貿易外收支上으로는 資本輸出의이었다. 말하자면 1930年以後 日本의 獨占資本이 朝鮮에 積極的으로 進出하였고 1937年에 일어난 中日戰爭과 第2次 世界大戰을 遂行하기 위하여 日本 公·社債가 朝鮮에서 약 100億圓 가량 引受되었다는 事實도 明白하다. 즉 貿易收支와 貿易外收支의 相違가 있다는 事實은 日本으로부터의 獨占資本進出은 貿易計定 및 貿易外計定에 함께 記錄되어 있으나 反面 朝鮮으로부터의 食料 및 衣服등과 武器등 軍需物資의 輸出은 貿易外計定에는 記錄되어 있지만 貿易計定에는 記錄되어 있지않은데 基因한다.

이 時期에 있어서는 日本 獨占資本의 積極的 進出로 말미암아 朝鮮에서 軍需工業이 活潑히 展開되었으며 이들에 의한 生産物이 中日戰爭 및 第2次世界大戰을 遂行하는 物質的 基礎가 되었던 것이다. 이 期間中の 入超는 1,120,707千圓이고 한편 貿易外收支의 支拂超過는 朝鮮의 公·社債引受의 切半 즉 50億圓이므로 同期間中の 資本輸出入밸란스는 資本輸出의이었다고 볼 수 있다.

(47) 會社資本進出의 增加趨勢를 보면 1919年에 170,842千圓에서 1931년에는 385,683千圓으로 第2段階에 있어서 약 2倍로 增加하였다. 그러나 高利潤이 保障되는 植民地에 있어서 약 10年間に 會社資本이 2倍로 成長할 수 있는 것은 구태어 外國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이 없어도 自體內的 蓄積만으로도 可能的 일로 보인다.

이와 같이 朝鮮의 被植民期間을 3段階로 나누어 資本輸出入關係로부터 그 性格을 考察해 보면 第1段階에서는 資本輸入의이었던 反面, 第2段階 및 第3段階에서는 資本輸出의이였다. 우리는 資料의 不足으로 이 期間中 얼마만한 資本이 流出되였는 가는 알 수 없으나 資本輸出入밸란스가 第1段階를 除外하고는 朝鮮에 계속 不利하였다는 事實은 確實히 알 수 있다.

그러나 資本輸出入밸란스가 朝鮮에 不利하였다는 事實이 바로 朝鮮의 對日本資本 輸入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II-1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日本資本이란 純全히 日本內에서 生産된 剩餘價値의 輸入 즉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과 그것에 의하여 朝鮮에서 蓄積된 資本을 合한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의 被植民期間을 통하여 朝鮮으로부터 不斷히 資本이 流出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日本으로부터 再輸入되는 過程 즉 朝鮮에서 生産된 剩餘價値의 循環過程을 밝아왔기 때문에 朝鮮으로부터 食糧 및 工業原料가 日本으로 끊임없이 輸出되고 反面 日本으로부터 資本財가 끊임없이 輸入된 結果 朝鮮으로의 日本資本輸入은 累積的으로 蓄積되어갔다. 朝鮮에 있어서 近代의 工業의 發展 및 鐵道를 비롯한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은 바로 이와 같은 日本資本의 輸入에 의하여 遂行되였던 것이다.

4. 特殊輸出入에서 본 資本輸出入

植民地下의 朝鮮의 輸出入밸란스를 完全히 把握하기 위해서는 一般輸出入과 더불어 特殊輸出入도 同時에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植民地下 朝鮮과 日本과의 資本輸出入關係를 文字 그대로 正確히 把握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貨幣的 價値를 갖는 文化財의 輸出入이라든가 密貿易까지도 把握해야 하겠지만 前者는 그것이 비록 經濟的 價値를 가진다 하더라도 一般商品처럼 取扱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며 後者は 여러가지 記錄에 비추어 보아 輸出入밸란스에 미치는 影響이 相當히 큰 것이지만 正常的 去來로서 把握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를 除外하면 一般輸出入밸란스에 包含되지 않는 것은 特殊輸出入만 남는다.

特殊輸出入은 朝鮮의 被植民期間에 있어서 그 總額이 얼마나 되며, 또한 그 內容이 어떠한가는 잘 알 수 없다. 特殊輸出入은 日本에 대한 것과 日本外地域에 대한 것으로 區分되는데 日本에 대한 그것은 1910年의 統計에만 나타나 있을 뿐 그 以後의 年度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對日本特殊輸出入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으나 對日本外地域 特殊輸出入은 第9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同表에 의하면 對日本外地域 特殊輸出入은 朝鮮의 被植民期間을 통하여 繼續되였던 것 같고 항상 輸出超過를 示顯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1940年版) p. 183, 貿易總表의 註에 의하면 “明治43年(1910)의 特殊輸出入品에는 對日本特殊輸出入品을 包含함”이라고 摘記되어 있어 이 年度以後에도 對日本特殊輸出入이 繼續되었던 것 같다. 만약 그것이 對日本外地域의 特殊輸出入과 같이 每年度 輸出超過를 示顯하였다면 一般輸出入에 있어서의 朝鮮의 輸入超過는 그 額數가 그다지 크지 못하기 때문에 特殊輸出超過에 의하여 大體로 相殺되거나 또는 特殊輸出超過가 一般輸入超過보다 커서 全體의 輸出超過를 示顯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正確한 意味에 있어서 朝鮮의 輸出入밸란스를 考察하려면 特殊輸出入과 더불어 一般輸出入을 檢討해야 할 것이다.

<第9表>

特 殊 輸 出 入

單位：圓

年 度	輸 出 入 總 額	輸 出	輸 入	輸 出 超 過
1910	1,393,554	783,238	610,313	172,922
1931	351,482	284,003	67,479	216,524
1932	173,178	171,318	1,860	169,458
1933	359,000	345,360	13,640	331,720
1934	283,322	186,317	97,005	89,312
1935	2,257,319	1,685,119	572,200	1,112,819
1936	1,608,265	1,356,509	251,756	1,104,753
1937	3,200,232	2,280,413	919,819	1,360,594
1938	2,435,645	2,036,682	398,963	1,637,719
1939	19,791,867	14,572,165	5,219,702	9,352,463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1940年), p. 183.

註：1910年の 特殊輸出入에는 對日本特殊輸出入品을 包含함.

그리고 特殊輸出入은 어떠한 內容을 가졌으며 어떠한 去來를 特殊輸出入으로 取扱하였는 가도 잘 알 수 없다. 貿易統計의 內容과 貿易事情을 說明하는 『朝鮮貿易要覽』 및 『朝鮮總督府施政年報』에서도 이에 관한 說明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貿易統計의 性質上 一般輸出入에 包含될 수 없었던 즉 一般去來가 아닌 軍需品の 輸出入이 이에 包含되어 있다면 植民地下 朝鮮經濟發展의 第1段階 및 第2段階의 事情은 잘 알 수 없으나 第3段階에 있어서는 莫大한 輸出超過를 示顯하여 一般輸出入의 入超를 相殺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特殊輸出入에 不包含되었다면 前述한 바와 같이 貿易統計에 記錄되어 있지 않는 海上漁獲物의 對日本輸出, 日本人遊來者 및 在朝鮮日本人歸省者의 土產物搬出과 軍需品の 輸出은 一般輸出入밸란스를 檢討할 때 함께 考慮되지 않으면 안된다.

特殊輸出入 및 一般輸出入이나 特殊輸出入에 包含되지 않는 輸出入에 의한 輸出超過에

대해서는 資料不足으로 다음의 研究機會로 미룰 수 밖에 없다.

IV. 日本資本의 投資形態

앞에서 우리는 貿易外收支分析을 통하여 日本資本의 輸入經路 및 그 輸入形態를 究明한 바 있다. 여기서는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의 投資形態를 究明할까 한다. 그런데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이 朝鮮에서 如何히 投資되었는가 하는 것은 日本으로부터 輸入되는 資本의 形態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이 朝鮮經濟의 發展段階에 따라 어떻게 投資되었는가를 論述하기 前에 貿易外收支를 통한 資本輸入形態와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의 投資形態와의 關係가 究明되어야 한다.

貿易外收支의 分析에서 究明된 바와같이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形態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實物資本輸入의 形態로서 日本資本市場에서 起債된 資本이 日本銀行券의 形態로 日本에 머물러 있다가 朝鮮經濟의 必要에 따라 實物資本이 輸入되는 것이다.

둘째는 貨幣資本輸入의 形態로서 日本資本市場에서 起債된 資本이 日本銀行券의 形態로 預入되고 朝鮮銀行券으로 貸出됨으로써 實物資本의 輸入이 없는 單純한 貨幣資本이 輸入되는 것이고

셋째는 公·社債 元利金 支拂의 形態로서 實物資本이나 貨幣資本의 輸入없는 負債의 累積인 것이다.

貿易外收支計定에 나타난 公·社債 등 貸付資本의 分析으로부터 導出될 수 있는 資本의 이러한 세가지 形態는 各經路를 통하여 日本으로부터 朝鮮에 輸入되는 資本一般에 대하여 適用될 수 있는 것이며 銀行·會社借入金의 경우에는 貨幣的 資本輸入의 形態가 支配的이며, 會社資本進出의 경우에는 實物資本輸入의 形態가 많았다는 特色이 있을 뿐이다.

實物資本의 形態 및 貨幣資本의 形態로 朝鮮에 輸入된 日本資本과 그것의 朝鮮에 있어서의 投資形態와의 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으로부터 輸入되는 資本은 會社資本의 直接的인 進出을 除外하면 대체로 朝鮮內 各金融機關의 貸付資本의 供給으로 나타나거나 朝鮮總督府特別會計收入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產業業種別로 貸付되거나 投資되는 경우도 있고 單純히 行政統治費로 支拂되는 경우도 있었다.

日本政府一般會計에서 支出되는 「朝鮮經營費」인 朝鮮總督府關係收入은 그 一部分이 產業施設에 投資되는 일도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軍事行政費等 消費資金으로 支出되었으

며, 朝鮮總督府 및 地方團體의 公債募集에 依한 資本輸入은 鐵道를 中心으로 하는 社會間接資本形成에 投資되고, 社債發行 및 借入金에 依한 資本輸入은 工業 鑛業 및 運輸業에 貸出되기도 하고 米穀蒐集資金을 爲主로 하는 農業, 商業 및 其他서비스業에 流通資金으로 貸出되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工業, 鑛業, 鐵道 및 其他社會間接資本에 投資된 資本은 대체로 實物資本輸入의 形態를 띠었던 것이며, 農業, 商業 및 其他서비스業에 대한 投資는 대체로 貨幣資本의 形態로 輸入되었고 軍事行政費도 貨幣資本의 形態로 輸入되었다.

이와같이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의 投資形態를 보면 實物資本形態로의 輸入과 貨幣資本形態로의 輸入이 있다.

實物形態로의 資本輸入은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資本輸入이지만 貨幣의 形態로의 資本輸入은 그러하지 못하다.

前述한 바와 같이 貨幣的 形態로의 資本輸入은 1次的으로는 實物資本의 輸入을 同伴하지 않고 朝鮮內의 自然資源, 資本 및 勞動을 支配함으로써 通貨量의 增加를 招來하였다. 이러한 朝鮮內通貨量의 增加가 朝鮮內 生産의 增加 및 土地價格의 上昇과 같은 流通量의 增加와 同等하다면 인플레이션을 誘發시키지 않을 것이나 만약 그것이 後者보다 커짐으로써 인플레이션을 誘發시킨다고 하면 朝鮮銀行券과 日本銀行券은 自由로 交換되고 또 平價를 維持해야 하므로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貨幣資本의 一部가 日本으로 逆輸出됨으로써 日本으로부터의 實物資本輸入을 招來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可變資本의 輸入 즉 勞賃이 支配할 수 있는 紡織物 및 其他日用品의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을 意味하게 된다.

前述한 바 日本으로부터의 貨幣的 形態의 資本輸入이 單純히 朝鮮內通貨量의 增加에만 기여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貨幣資本의 總收入中 日本에로의 再輸出部分을 差減한 純貨幣的 資本輸入을 意味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貿易外收支를 通해서 본 資本輸入形態인 實物資本輸入, 貨幣資本輸入 및 公·社債元利金支拂等은 朝鮮에 있어서의 投資形態에 規制되어 첫째 實物資本輸入인 資本財輸入 둘째 貨幣的 資本輸入의 一部分이 日本으로 逆輸出됨으로서 發生하는 消費財輸入 셋째 純貨幣的 資本輸入 넷째 公·社債元利金支拂로 變容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이 資本輸入 形態를 投資形態와 關聯시켜 네가지로 나누어 보면 貿易收支分析에서 導出될 수 있는 세가지 形態와 다른 點은 둘째의 資本輸入形態인 貨幣資本의 逆輸出에 의한 消費財의 輸入이 追加되어 있다는 點과 이것이 貨幣的 形態로의 資本輸入에 차지하는 比重에 따라서 貿易外收支分析에서 導出된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의 內容에 대한 解析

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미리指摘해 두어야 할 것은 消費財形態로의 資本輸入이 貨幣的 資本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可變資本을 所得으로 하는 勞働者 및 農民의 生費計는 大部分이 食費에 支出되고 紡織物을 爲主로 하는 近代의 商品에 支出되는 部分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반면 生産의 增加 및 自然資源의 商品化를 통한 朝鮮內商品流通量의 增加를 통한 通貨의 吸收力은 상당히 강했기 때문이다.

前述한 바와같이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經路는 朝鮮總督關係收入, 朝鮮總督府 및 地方公共團體의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 및 朝鮮總督府의 日本으로부터의 借入金 特殊會社 및 銀行의 社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 日本人의 朝鮮內本店 및 支店會社를 통한 資本輸入, 銀行 및 會社의 借入金 및 其他 個人的 持參金等이다. 이들 經路를 통한 資本輸入은 어느것이나 被植民初期로부터 末期에 이르기까지 持續되어 왔던 것이나 그들이 朝鮮經濟發展의 各段階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各各 相異하였다.

朝鮮經濟發展의 第1段階에 있어서 資本輸入에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 것은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이며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에 의한 資本輸入 및 日本人의 朝鮮內 本店 및 支店會社에 의한 資本輸入도 상당히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

이들의외에 特殊會社 및 銀行의 私債募集과 銀行 및 會社의 借入金에 의한 資本輸入도 다소 있기는 하였으나 그 額數는 거의 無視해도 좋을 程度이고 個人的 持參金에 의한 資本輸入은 이 段階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額數가 얼마에 達하는가는 잘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면 第1段階에 있어서 資本輸入에 重要한 役割을 한 것은 公債發行, 朝鮮總督府關係收入 및 日本人會社資本의 進出에 의한 資本輸入인데 朝鮮總督府關係收入은 주로 消費支出인 軍事行政費에 充當되고 日本人會社資本은 金融保險業 및 商業等に 投資된 商業資本과 農林水產業에 投資된 農業資本이 거의 大部分이었으므로 이 兩者는 貨幣資本輸入을 爲主로 하였던 것이며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資本輸入을 惹起시켰던 것은 鐵道投資를 中心으로 하는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에 기여한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뿐이었다.

第2段階에 있어서 資本輸入에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 것은 私債募集 특히 朝鮮殖產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의 私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이며 公債發行 및 朝鮮總督府關係收入에 의한 資本輸入도 상당히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 이외에 日本人會社資本의 進出에 의한 資本輸入은 거의 無視해도 좋을 程度이다.

이와같이 이 時期에 資本輸入에 重要한 役割을 한 것은 위의 3者인데 앞에서指摘한 바와같이 朝鮮總督府關係收入에 의한 資本輸入은 주로 消費支出인 軍事行政費에 充當되었고

社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은 米穀蒐集資金을 爲主로 하는 商業資本이 많았다. 그리고 實物資本의 輸入에 의한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에 기여하는 公債募集에 의한 資本輸入은 이 時期에도 主로 鐵道에 投資되었으나 第1段階에서처럼 朝鮮에만 投資되지 않고 朝鮮外地域에 많이 投資되었다. 그러므로 第2段階의 資本輸入은 純粹貨幣的 資本輸入이 많았고 眞正한 意味의 資本輸入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第3段階에 있어서는 朝鮮總督府關係收入을 除外하고는 위에서 記述한 各 經路를 통한 資本輸入이 어느 時期에 있어서 보다도 活潑하였다. 公債引受資金에 의한 鐵道延長의 累積的 增加, 社債引受資金에 의한 農村收奪의 強化 및 日本人會社資本의 進出에 의한 軍需産業의 急速한 成長等 1928年 日本에서 비롯된 世界的 不景氣를 克服하기 爲한 軍事的 浪費增大를 目標로 하는 各種 戰爭이 1931年 滿洲事變以後 繼續的으로 進行함에 따라 朝鮮經濟發展은 눈부신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들 諸活動中에서도 軍事的 浪費를 前提로 하는 會社資本의 進出에 의한 軍需産業의 發達이 가장 뚜렷하였다. 그러므로 第3段階에 있어서 資本輸入의 主導的 役割을 擔當한 것은 會社資本의 直接的 進出이다.

이와같이 朝鮮經濟의 發展段階에 따라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의 投下形態를 보면 第1段階에 있어서는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에 第2段階에서는 流通資金 즉 貨幣資本의 增加에 第3段階에 있어서는 혹심하게 國民生活을 犧牲시키는 軍需産業에 各各 投資된 것이다.

1. 第1段階 1910~1918

지금까지 우리는 國際收支資料의 制約上 植民地下 朝鮮經濟發展의 第1段階를 1910年의 韓日合邦으로부터 植民地的 基礎作業이 完成된 1918年까지로 잡아왔다. 그러나 實際로 朝鮮이 日本의 植民地的 支配下에 들어간 것은 日露戰爭이 끝난 1905년부터이며 그 以前에 遂行된 鐵道の 建設 및 通信網의 設置도 植民支配過程의 一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第1段階의 植民地的 基礎作業을 1910年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以前의 植民地的 諸基礎作業도 포함시켜 考察코자 한다.

植民地的 基礎作業過程에 있어서 重要한 事業은 土地의 近代의 所有權確立과 土地收奪을 爲한 土地調査事業, 工業化의 初期段階에 그렇게도 重要하다고 強調되고 있는 社會間接資本인 鐵道, 道路, 港灣等의 建設과 金融機構確立이었다.

土地調査事業은 日本政府一般會計支出補充金 및 借入金에 의하여 遂行되었으며 鐵道, 道路, 港灣等의 建設은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에 의하여 遂行되고 金融機關의 確立은 日本會社資本의 直接的 進出에 의하여 遂行되었다.

1) 朝鮮總督府關係收入에 의한 投資

朝鮮總督府關係收入은 前述한 바와같이 日本政府一般會計에서 支出되는「朝鮮經營費」로서 軍事費와 補充金으로 構成되어 있다. 第10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第1段階에 있어서 朝鮮總督府關係收入은 軍事費로 81,564千圓이 支出되고 行政費로 82,343圓이 支出되었다. 軍事費는 陸軍費 및 海軍費로 構成되어 있는데, 當時 朝鮮에 駐屯하고 있었던 日本軍은 朝鮮總督府의 支配下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日本政府의 直接的인 支配 監督下에 있었기 때

〈第10表〉

一般會計支出朝鮮經營費

單位：千圓

年 度	軍 事 費			補 充 金	合 計
	陸 軍	海 軍	計		
1910	9,510	683	10,193	15,643	25,836
1911	8,511	1,141	9,652	12,350	22,002
1912	8,014	969	8,984	12,350	21,334
1913	7,283	949	8,233	10,000	18,233
1914	6,524	545	7,069	9,000	16,069
1915	6,210	760	6,971	8,000	14,971
1916	8,088	649	8,737	7,000	15,737
1917	9,752	784	10,536	5,000	15,536
1918	10,450	738	11,189	3,000	14,189
合 計	74,342	7,218	81,564	82,343	163,907

註：1910年の 補充金中에는 統監府時代の 行政費를 包含함(1910年度分은 2,885千圓인).

資料：朝鮮銀行調査課,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대하여』, pp. 28~9.

문에 軍事費는 朝鮮總督府特別會計에 所屬되지 않고⁽⁴⁸⁾ 日本政府가 朝鮮駐屯軍의 維持를 爲하여 直接 支出하는 經費이다. 補充金이라고 불리워지는 行政費는 狹義의 行政費, 警務費 및 事業費로 構成되어 있는데, 補充金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比重은 年度에 따라서 相異하다. 第1段階에서는 事業費의 比重이 제일 높은 편이고 그 다음으로 警務費의 比重이 높다.

事業費 및 警務費와 補充金과의 關係를 보면 第1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警務費가 補充金の 40%를 넘는 형편이며 事業費의 一部인 官業費가 補充金の 200%에 가깝다. 그리고 朝鮮總督府가 支出하는 軍事費인 部隊費를 警務費에 合하면 消費의 支出인 警務費만이 補充金の 50%에 達할 것으로 推測되며 全體事業費에 대한 補充金の 比重은 극히 낮다.

事業費의 內容은 多樣하나 그것의 大部分이 官業費이며 官業費는 植民地의 租稅掠奪을

(4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1年), pp. 92~3을 보면 “그러나 明治 44(1911)年度에 있어서는 朝鮮經營에 必要한 諸經費는 軍事費를 除外하고 全部 이를 朝鮮總督府特別會計에 編入經理하게 하고”라고 指摘되어 있으므로 日本政府 一般會計支出「朝鮮經營費」中 朝鮮總督府特別會計에 編入된 것은 軍事費를 除外한 補充金뿐이었다는 것이 確實하다.

<第 11 表>

一般會計支出補充金과 그에 의한 事業

單位：千圓

年 度	補 充 金	警 務 및 官 業 費		
		警 務 費	官 業 費	計
1910	15,643	—	—	—
1911	12,350	4,038	10,069	14,107
1912	12,350	4,140	15,989	15,129
1913	10,000	5,365	12,138	17,503
1914	9,000	4,218	22,683	26,901
1915	8,000	4,174	22,168	26,342
1916	7,000	4,184	23,968	28,152
1917	5,000	4,202	27,098	31,300
1918	3,000	4,404	21,590	25,994
合 計	82,343	34,725	150,703	185,428

資料：朝鮮銀行調査課,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대하여』, pp. 28~9 및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25年度), pp. 74~6.

目的으로 하는 人蔘, 鹽 및 煙草等의 專賣事業費로 支出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와같이 補充金은 治安維持費 및 租稅制度確立을 위한 經費로서 그 大部分이 朝鮮의 自主獨立을 沮害하는 暴力的 植民支配의 物質的 源泉이거나 植民地的 租稅收奪의 源泉이며 浪費의 이며 收奪의 이었다.

이 時期에 特記할 事項中의 하나로서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土地調査事業이 있다. 土地調査事業費는 朝鮮總督府特別會計歲出入臨時部에서 支出되었는데 當時朝鮮總督府特別會計歲入은 補充金, 公債募集金 및 事業資金臨時借入金으로 構成되어 있었으므로⁽⁴⁹⁾, 補充金이나 事業資金臨時借入金에서 支出된 것이 分明하다. 그런데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補充金은 그 主要用途인 警務費와 官業費를 全額 支拂하기에 不足한 形便이었으므로 1910年 3月로부터 1918年 12月間의 8年 10個月에 걸쳐 2,406千餘圓의 費用으로 遂行된⁽⁵⁰⁾ 土地調査事業의 費用까지 補充金에서 支拂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土地調査事業은 朝鮮總督府의 事業資金臨時借入金에 의해서 遂行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¹⁾ 이 土地調査事業은 朝鮮人의 租稅負擔을 物質的 基盤으로 하여 日本人의 土地收奪을 조장한 日本植民政策의 典型的인 例이다.

(4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0年), p. 870.

(50)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p. 77.

(51) 朝鮮總督府特別會計臨時部에 있어서는 歲入歲出明細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어떤 歲入이 어떤 歲出에 充當되었는가는 잘 알 수 없으므로 土地調査費가 반드시 借入金에서 支出되었다고 단은 할 수 없겠으나 借入金의 借入目的에 비추어 보면 土地調査費는 대체로 借入金에서 支出된 것 같이 보인다.

2) 公債募集金 및 借入金에 의한 投資

公債募集金 및 借入금은 “道路修築 海關工事와 鐵道建設 및 改良等”⁽⁵²⁾ 朝鮮의 植民地的 開發에 必要한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에 投資되었다. 물론 이들 資金이 全적으로 이러한 事業에 投資되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舊韓國時代의 負債整理, 各種 天災救濟資金, 銀行救濟資金等”⁽⁵³⁾에 投資되기도 하고 煙草專賣事業費, 治水事業費等에 投資되기도 하였다. 借入금은 대체로 公債募集金과 같은 目的으로 起債되는 것이므로 公債募集金の 投資內容을 가지고 이들 資金의 投資內容을 보면 第12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鐵道關係投資 82.4%, 道路投資 4.0%, 煙草專賣事業投資 3.2%, 海關工事投資 2.8%, 治水事業投資 1.3% 및 其他 6.2%로 構成되어 있다. 이와같이 公債募集金 및 借入金도 鐵道, 道路, 海關工事 및 煙草專賣事業等에 主로 投資되었는데 이들중 施設財의 輸入을 要하는 것은 鐵道 및 海關工事뿐이며 대체로 貨幣的 投資 즉 可變資本的 投資가 많았던 것은 煙草專賣 및 道路事業이었다.

< 第 12 表 > 朝鮮總督府特別會計所屬國債의 事業別內容 單位：千圓

事 業	金 額	比 率
鐵道建設 및 改良費	495,651	78.2
私設鐵道買收費	26,749	4.2
道路修築改良費	25,467	4.0
煙草專賣創業費	20,027	3.2
海關工事費	17,809	2.8
治水事業費	8,540	1.3
其他	39,308	6.2
合 計	633,551	100.0

註：1938年末現在입

資料：朝鮮殖産銀行, 『殖銀調査月報』, 1940年 6月號, pp. 17~8.

그런데 公債募集金 및 借入金에 의한 投資는 補充金과는 달리 浪費的인 消費支出이나 施設財輸入없는 貨幣的投資는 적고 鐵道投資를 中心으로 하는 施設財輸入에 의한 投資가 많았다.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金과 鐵道投資와의 關係를 보면 第13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兩者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이는 公債募集이 主로 鐵道建設에 投資되고 鐵道の 成長은 公債募集金の 增加와 比例하는 關係를 나타낸다.

(52)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25年), p. 113.

(53) 鈴木正文, 『朝鮮經濟의 現段階』, p. 397.

<第 13 表>

公債에 의한 輸入金과 鐵道投資額

單位：千圓

年 度	公 債 輸 入 金		鐵 道 投 資	
	年 末 現 在 高	每 年 增 加 分	年 末 現 在 高	每 年 增 加 分
1910	21,175	2,095	105,077	9,014
1911	31,175	10,000		
1912	44,958	13,783	114,720	9,381
1913	56,516	11,558	123,382	8,469
1914	62,657	6,141	131,016	7,548
1915	69,102	6,445	139,021	7,879
1916	78,687	9,585	146,726	7,435
1917	93,387	14,700	157,878	5,998
1918	104,922	11,535	163,972	9,745

註：鐵道投資額의 每年增加分은 朝鮮總督府支出增加分만을 計上하였으므로 鐵道投資額年未現在 高의 增加分과는 약간의 差異가 있다.

資料：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附表 p.22 및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四十年略史』, p.578.

이와같은 結論은 대체로 1910年 以後부터 妥當하다. 물론 1910年 以後에도 1916年까지 는 “公債有高 31,052千圓에 대하여 借入金은 47,635千圓”으로서 公債보다 오히려 借入金 이 빨리 增加하였으나 “1921年에 이르면 公債有高 139,686千圓에 대하여 借入金은 50,635千圓에 不過하게 되고 1927年에 이르면 公債는 漸增하는 反面 借入金은 漸減하고 있으므로”(54) 鐵道投資에 대한 借入金의 役割은 植民地의 朝鮮經濟發의 第1段階에서는 상당히 큰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그 以後에는 거의 無視해도 좋을 것 같고 鐵道의 成長을 公債募集金 의 增加와 比例關係에 있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1910年 以前에는 事情이 좀 다르다.

1911年 朝鮮事業公債金特別會計法이 制定되기 以前에는 朝鮮總督府에 公債發行의 權限 이 없었으므로 朝鮮鐵道에 대한 投資는 日本政府一般會計에서 支出되는 「朝鮮經營費」에 서 直接 支出되었으며(55) 朝鮮總督府特別會計를 거치지 않는 日本國家資本의 直接的 進出 形態를 띠고 있었다.(56)

(54) 上掲書 p. 397.

(55) 1910年 韓日合邦以前의 「朝鮮經營費」는 그 以後의 그것과는 內容이 相異하였다. 1910年 以後의 「朝鮮經營費」는 軍事費와 補充金으로 構成되어 있었으나 合邦前의 그것은 經常部, 臨時部 및 特別會計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內容은 經常部와 臨時部는 대체로 合邦以後의 軍事費, 補充金 및 其他 行政諸費로 構成되어 있으며 特別會計는 産業 및 鐵道費로 構成되어 있다.

(56) 朝鮮鐵道에 대한 投資는 合邦以前 日本政府一般會計에 의한 直接投資와 公債募集金 및 借入金에 의한 投資外에 1906年까지 京仁線 및 京釜線에 대한 一般會社資本의 投資가 있었으나 京仁線은 1903年 京釜鐵道株式會社에 吸收되고 또 京釜鐵道株式會社는 表面上 民間會社같이 보이나 資本 面에 있어서 日本政府에 依存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會社重役도 日本政府에 의하여 被任되는 擬制團體였으므로 日本政府의 直接投資로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四十年略史』, p. 37 參照.)

이 時期에 있어서의 鐵道事業을 檢討하여 보면 1900 年에 京仁線, 1905 年에 京釜線 및 馬山線, 1906 年에 京義線, 1910 年에 平南線, 1914 年에 湖南線 및 京元線等を 各各 完工하고 1914 年에 咸鏡線 建設에 着手하여 朝鮮의 鐵道基幹線을 거의 確立하였다. 1918 年에 營業線 1,923.4 km, 投資額 163,972 千圓으로써 營業線의 延長에 있어서는 1940 年 營業線 4,293.3 km 의 45%에 達하고 있으며 投資額은 1940 年 投資額 1,012,055 千圓의 16%에 이르고 있다.

3) 社債募集金에 의한 投資

前述한 바와 같이 社債募集은 朝鮮殖産銀行, 東洋拓殖株式會社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나 植民地的 朝鮮經濟發展의 第1段階에 있어서는 東洋拓殖株式會社를 除外하고 나면 社債를 發行하는 機關은 거의 없었다. 이 期間에 이 經路를 통한 資本輸入額은 第14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945 千圓이었으며 그 內容을 보면 東拓債 40,945 千圓, 殖銀債 3,000 千圓, 農工銀行債 3,000 千圓으로써 東洋拓殖株式會社의 社債가 가장 많으나 그 總額은 얼마되지 않았다.

<第14表>

朝鮮殖産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 社債

單位：千圓

年 度	朝 鮮 殖 産 銀 行		東 洋 拓 殖 株 式 會 社	
	年 末 現 在 額	每 年 增 加 分	年 末 現 在 額	每 年 增 加 分
1910	—	—	—	—
1911	—	—	—	—
1912	—	—	19,350	19,350
1913	—	—	1,9350	0
1914	—	—	19,350	0
1915	—	—	19,350	0
1916	—	—	19,350	0
1917	—	—	36,350	17,000
1918	6,000	3,000	40,945	4,595

註：朝鮮殖産銀行의 1918 年社債年末現在額 6,000 千圓中에는 1918 年 10 月 1 日 農工銀行으로부터 承繼한 社債 3,000 千圓이 包含되어있음.

資料：朝鮮殖産銀行, 『朝鮮殖産銀行二十年誌』, p. 236 및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二十年誌』, p. 156.

그리고 東洋拓殖株式會社의 社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金의 貸出內容을 보면 第15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7 年에 農林水産業 83.0%, 鑛業 0.3%, 製造業 4.7%, 其他 12.0%로 構成되어 있다. 東拓의 産業別 貸出構成에 農林水産業 및 其他 商業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 經路를 통해서는 資本財의 輸入이 거의 없었고 單純한 貨幣資

본의 輸入에 의한 土地 및 自然資源의 支配와 이에 따른 朝鮮內 流通資本의 增加가 많았다는 事實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이 時期에 있어서 社債募集에 의한 日本資本의 輸入은 아주 적었으며, 資本의 輸入도 農業 工業 및 社會間接資本에 固定되는 投資에 의한 朝鮮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하였다기 보다 차라리 朝鮮穀物의 對日本輸出과 日人の 朝鮮土地 및 自然資源의 支配에 投資됨으로써 土地 및 自然資源의 商品化(=流通貨幣資本의 增加)에 이바지하였다.

<第 15 表>

東洋拓殖株式會社 業種別 貸付

單位：千圓

業 種	1912 年 末	1917 年 末
農 林 水 產 業	1,904 (79.3)	8,659 (83.0)
鑛 業	—	34 (0.3)
製 造 業	—	489 (4.7)
運 輸 交 通 業	—	—
瓦 斯 및 電 氣	—	—
其 他	497 (20.7)	1,248 (12.0)
合 計	2,401(100.0)	10,430(100.0)

資料：東洋拓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二十年誌』, pp. 26~8.

4) 日本人會社資本에 의한 投資

植民地的 朝鮮經濟의 發展에서 볼 때 이 時期에는 朝鮮에 있어서의 會社資本의 發展이 가장 느렸다는 것이 一般의인 結論이다. 이러한 見解는 1911年 「會社令」實施以後 1920年에 「會社令」이 撤廢될 때까지 朝鮮의 民族「부르좌지」의 發展을 抑壓하고 日本人資本이 朝鮮에 進出할 수 있을 때까지 時間的 餘裕를 얻고 또 朝鮮을 農業植民地로서 一旦 整理하기 爲하여 日本人會社이건 朝鮮人會社이건 그 設立을 一旦 抑制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이 時期에 商業 및 工業會社의 資本成長이 느렸다는 點에서는 妥當한 結論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結論은 朝鮮內 日本人 및 朝鮮人의 本店會社 특히 小資本에 의한 工業 및 商業部門의 會社設立 및 그 資本金의 增加라는 角度에서 觀察하면 妥當한 것이나 日本本店會社에 의한 大資本의 對朝鮮進出 특히 農業植民地建設을 爲한 金融資本의 對朝鮮進出에 대해서는 妥當한 것이 아니다. 第16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1年에 朝鮮本店會社의 拂入資本金은 699,899千圓에 이르고 있으며 그 內容을 보면 金融保險業, 運輸倉庫業, 商業, 農業, 水產業等 植民地的 收奪의 外的 機構를 마련하는데 總會社拂入資本金의 83.6%가 投下되고 있으며 工業, 瓦斯 및 電氣, 鑛業等 植民地的 經濟建設을 위해서는 總會社拂入資本金의 16.4%가 投下되어 있다. 이는 이 時期에 朝鮮에 進出한 日本會社資本이 工業

農業開發 鑛業 및 其他 社會間接資本의 擴充等 植民地的 經濟建設에 投下되었던 것이 아니라 金融保險業 運輸倉庫業 商業 및 米穀蒐集 및 土地買收를 目的으로하는 農業等に 投資되었다는 事實을 明示하고 있다.

<第 16表> 朝鮮本店會社 業種別拂入資本額(1921 年末現在) 單位：千圓

業 種	拂 入 資 本 金 (比 率)
金 融 保 險 業	84,747 (42.4)
商 業	28,923 (14.5)
工 業	19,758 (9.9)
瓦 斯 및 電 氣	5,938 (3.0)
農 林 水 產 業	20,972 (10.5)
鑛 業	7,064 (3.5)
運 輸 倉 庫 業	32,497 (16.2)
合 計	699,899(100.0)

資料：朝鮮工業協會, 『會報』, 1931 年 11 月號, p. 6.

이 期間에 朝鮮에 進出한 重要會社를 보면 兼二浦製鐵所와 같이 日本의 大資本에 의하여 建設된 朝鮮經濟의 植民地的 開發을 目的으로하는 巨大支店會社도 있기는 하였으나 그 외는 大體로 朝鮮殖産銀行과 같이 1千萬圓의 資本金을 가진 金融會社나 釜山汽船株式會社와 같이 6百萬圓의 資本金을 가진 運輸會社 및 東洋拓殖株式會社와 같이 2千萬圓의 資本金을 가진 農業會社가 大部分이었다. 金融會社에 있어서는 朝鮮銀行, 朝鮮殖産銀行, 普通銀行, 金融組合等이 있었으며 運輸會社에는 朝鮮鐵道株式會社를 비롯한 5개의 鐵道會社와 釜山汽船株式會社를 비롯한 수많은 海運會社가 있었고 農業會社에는 東洋拓殖株式會社를 비롯한 많은 農業會社가 있었다.

이와같이 이 時期에 있어서 會社資本의 進出은 많았으나 工業과 같이 朝鮮經濟의 植民地的 發展을 目的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大部分은 金融, 運輸, 商業 및 商業을 爲한 農業等に 주로 投資되었기 때문에 會社進出에 의한 日本資本의 輸入은 대체로 貨幣資本의 輸入이었다.

5) 銀行·會社의 借入金 및 個人的 持參金에 의한 投資

銀行·會社의 借入金は 前述한 바와 같이 短期信用資本으로서 純粹한 流通資金이며 固定的 施設에 投下되는 일은 드물었다. 그리고 借入金は 日本에서 借入된 것과 朝鮮內에서 借入된 것을 區別하기가 꼭 어려워 두가지가 混淆되어 흔히들 日本으로부터의 借入金으로 規定되고 있기 때문에 이 項目을 가지고 우리가 究明하려는 바의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額을 알기는 어렵다.

그리고 朝鮮經濟의 植民地的 發展初期인 이 時期에 個人持參金에 의한 資本輸入 즉 會社 아닌 個人이 朝鮮으로의 商品輸入에 의한 資本輸入으로 朝鮮에서 商業, 高利貸業 및 農業을 經營하였던 例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한 資本輸入이 특히 이 期間에 상당액에 達하였을 것으로 推測되는 바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에 의한 資本의 輸出도 相當額에 達하고 있다. 그러므로 主로 日本으로의 資本流出을 目的으로 하는 商業, 高利貸業 및 農業에 投資된 이들 資本이 朝鮮에 固定되었다고 보거나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에 플러스的 役割을 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上記한 두가지 經路를 통한 資本의 輸出入關係를 統計로 把握하기는 극히 어렵고 또 兩者는 主로 日本과 朝鮮사이에 끊임없이 循環하는 流動的 投資이므로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이 朝鮮에 어떠한 形態로 投資되는가 하는 問題를 取扱하는 本項에서는 以下 이 두개 項目을 除外한다.

2. 第2段階 1919~1930

植民地的 朝鮮經濟發展의 第2段階에서 遂行된 가장 重要的 事業은 「產米增殖計劃」이다. 이 時期에 있어서는 이외의 刮目할만한 事業은 없었으나 第1段階에서 遂行되어 오던 鐵道를 中心으로 하는 社會間接資本의 擴充과 植民地的 租稅搾取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이 繼續되었고 第1段階에서는 「會社令」때문에 發展이 抑壓되어 왔던 商工業部門에 있어서의 會社資本이 어느程度의 成長을 보았다.

「產米增殖計劃」은 耕地面積의 擴大, 土質改良 및 農事技術의 向上을 통한 米穀의 增産을 期하고 이를 基礎로 하는 日本으로의 米穀輸出增大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이었다.⁽⁵⁷⁾ 耕地面積의 擴大 土質改良 및 農事技術의 向上等 米穀增産計劃은 朝鮮總督府에서 支拂되는 補助金, 日本大藏省 預金部에서 支出되는 朝鮮總督府의 斡旋資金 및 朝鮮殖産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의 貸付金에 의해서 遂行되고⁽⁵⁸⁾ 米穀輸出計劃은 朝鮮殖産銀行 및 東洋拓

(57) 지금까지 흔히들 「產米增殖計劃」은 米穀의 對日本輸出增大를 前提로 하는 朝鮮에 있어서의 米穀增産計劃으로만 把握하여 왔다. 이러한 見解는 잘못된 것이다. 「產米增殖計劃」은 米穀增産計劃과 米穀輸出增大計劃으로 區分되어 있었으며 米穀의 增産實績은 增産計劃의 28%에 不過하나 米穀의 輸出實績은 輸出計劃의 約 100%에 達하고 있으므로 增産計劃보다 輸出計劃이 오히려 철저히 遂行된 편이다. 그러므로 「產米增殖計劃」은 增産計劃과 輸出計劃으로 構成되어, 있었으며 輸出計劃이 增産計劃보다 우위에 있었으므로 「產米增殖計劃」은 本質적으로 「米穀輸出增大計劃」인 것이다.

(58) “事業資金總額 325 百餘萬圓中 土地改良資金 285 百餘萬圓 農事改良資金 4 千萬圓으로 豫定하고 土地改良 所要資金 285 百餘萬圓에 대해서는 國庫補助金 6,507 萬圓 및 企業者自身이 調達해야 할 金額 22 百餘萬圓을 控除한 殘額 19,507 萬餘圓의 半額은 大藏省 預金部로부터 低利資金을 供給하고 他의 半額은 朝鮮殖産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로 하여금 調達케 하고 平均 7 分 4厘의 利率로서 貸出을 받도록하고…”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p. 394.)

殖株式會社の 貸付金에 의하여 遂行되었다.⁽⁵⁹⁾ 米穀增産計劃에 投下된 資本은 開墾, 水利施設 및 土質改良等 固定投資에 使用되기는 하였으나 施設財의 輸入을 많이 要하는 것은 아니었고 米穀輸出計劃에 投下된 資本은 流通資金으로서 米穀蒐集資金이 가장 많았다.

이와같이 「產米增産計劃」에 의한 資本輸入은 實物資本輸入보다는 貨幣資本의 輸入이 많았으며 資本輸入의 이라기보다는 資本輸出의 이었다.

鐵道를 中心으로 하는 道路, 港灣의 建設等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도 前期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進行되었으나 鐵道를 除外하고는 投下資本量 및 施設規模에 있어서 第1期보다 작은 편이었다.⁽⁶⁰⁾ 鐵道建設에 있어서는 投下資本量이 前期에 비하여 많은 편이나 軌道延長을 前期보다 훨씬 작았다. 이는 1917年에서 1925年까지 鐵道經營을 南滿洲鐵道株式會社에 委託하였기 때문에 朝鮮總督府에서 支出되는 鐵道建設 및 改良資金이 朝鮮內鐵道에만 投下되지 않고 滿洲에 많이 投下된 結果인 것으로 보인다.⁽⁶¹⁾

이와같이 第2段階에 있어서도 第1段階와 같이 鐵道를 中心으로 하는 社會間接資本에 日本資本이 繼續 投下되기는 하였으나 投下된 資本量에 있어서나 그것에 의한 建設規模에 있어서는 第1段階의 그것보다 작았다.

會社資本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金融業을 中心으로 하는 國家資本의 進出은 별로 없었으나 1920年「會社令」이 撤廢된 結果 工業 및 商業에 있어서 小規模의 民間會社資本의 增加가 多少 있었다.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와 같이 資本金 54萬圓을 가진 大會社資本의 進出도 多少 있기는 하였으나 그 數는 적으며 또 그들중 大部分이 1927年以後에야 創立된 것이므로⁽⁶²⁾ 이 時期에는 大會社에 의한 資本輸入은 그리 많지 않았다. 朝鮮에 本店를 둔 會社의 社當 資本規模의 推移를 보면 “1921년에는 1社當 平均資本額이

(59) 朝鮮殖産銀行, 『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 p. 114.

(60) 1911년에 起工하여 1917년에 完了된 「治道 第1期工事」에 投下된 資本量은 1千萬圓이나 1917년에 시작하여 1922년에 完工된 「治道 第2期工事」豫算은 7,500千圓에 不週하고 1929년에 가서야 治道費가 追加 改正된 것으로 보아(朝鮮總督府, 『施政 二十五年史』, p. 639) 第2段階에 있어서는 道路建設이 活潑하지 못했던 것 같고, 港灣施設은 第1段階에서 基本的인 建設事業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第2段階에서는 補修增築程度에 不週하였다.

(61) 1917年 經營委任契約書에서는 “朝鮮總督府는 會社(滿鐵)에 대하여 朝鮮에 있어서 國有鐵道の 建設, 改良, 保存, 運輸 및 附帶業務一切의 經營을 委託함. 建設 및 改良에 要하는 資金은 總督府의 負擔으로 함”이라고 規定하고 익년 同契約書의 一部改正時에 “該契約中 營業收支를 別個의 計定으로 하는 趣旨를 改正하여 이것을 會社의 一般經濟에 併入하여 兩者經營共通의 實을 거둘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朝鮮總督府가 支出하는 資金이 朝鮮鐵도에만 局限되어 使用되지 않았음이 分明하다.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四十年略史』, pp. 92~3.)

(62) 이 時期에 資本金 10萬圓 以上의 大企業은 18個社가 設立되고 그중 10個社는 1927年 以後에 設立되었다. (鈴木正文, 『朝鮮經濟의 現段階』, p. 25.)

274千餘圓이었으나 1930년에는 114千餘圓으로 平均資本額이 低下⁽⁶³⁾되었다. 이와같이 이 時期에 日本으로부터 資本을 輸入해야 하는 大企業의 發達は 적었던 반면 多數의 中小企業이 簇出하였던 것은 會社資本進出에 의한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은 적었고 朝鮮內에서 蓄積된 多數의 小資本이 商業部門에 投資되지 않았나 한다.

1)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에 의한 投資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은 軍事費와 行政費인 補充金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政府一般會計에서 支出되는 軍事費는 朝鮮總督府特別會計에의 支援金이 아니고 日本政府가 朝鮮에 駐屯한 日本軍을 爲하여 直接支出하였으므로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으로 볼 수 없다. 第17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時期의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은 陸軍費 189,813千圓, 海軍費 20,628千圓, 補充金 167,111千圓으로 構成되어 있다. 軍事費는 前述한 바와 같이 朝鮮總督府가 支出하는 것이 아니고 日本政府一般會計에서 支出되는 것이므로 繼續될 性質의 것이나 補充金은 “1913年 以後 朝鮮財政의 獨立計劃을 樹立하여 1919年에 이르러서는 全然 日本의 中央政府로부터 補充金을 要求하지 않게 되었으나 1920年에 이르러 例의 萬歲事件後의 經營에 必要한 經費 歐洲大戰의 進軍에 따른 經費等이 激增 다시 補充金制度가 復活⁽⁶⁴⁾되었다. 이와같이 이 時期에 있어서의 補充金은 대체로 警務費 및

<第 17 表> 一般會計支出 朝鮮經營費 單位：千圓

年 度	軍 事 費			補 充 金	合 計
	陸 軍	海 軍	計		
1919	15,065	773	15,838	—	15,838
1920	16,963	894	17,857	10,000	27,857
1921	23,747	840	24,587	15,000	39,587
1922	18,039	1,511	19,551	15,600	35,151
1923	15,423	1,946	17,369	15,017	32,386
1924	13,570	1,691	15,238	15,021	30,260
1925	14,144	1,624	15,769	16,554	32,324
1926	14,239	1,476	15,716	19,454	35,161
1927	13,876	1,564	15,441	15,000	30,441
1928	13,725	2,147	15,873	15,000	30,873
1929	15,330	3,179	18,559	15,000	33,559
1930	15,665	2,983	18,648	15,414	34,122
合 計	189,813	20,628	210,446	167,111	377,559

資料：朝鮮銀行調查課,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대하여』, pp. 29~30.

(63) 趙璣潛, 『韓國經濟의 近代化와 民族資本』, p. 163.

(64) 鈴木正文, 『朝鮮經濟의 現段階』, p. 401.

軍事費에 주로 支出되었던 것 같다.

이 時期에 있어서 補充金은 前述한 바와 같이 “萬歲事件後의 經營에 必要한 經費” 및 “歐
洲大戰의 進軍에 必要한 經費” 즉 警察 및 軍事費의 補充을 目的으로 하는 收入이었다.
第1段階에 있어서의 補充金은 警察費와 官業費였는데 第2段階의 그것은 第1段階의 그것
과 크게 對照를 이루고 있다. 第18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時期에 있어서 補充金收入은
167,111千圓인 반면 警務費支出은 224,618千圓으로서 補充金은 警務費를 커버하기에
不充分하였고 이 期間의 官業費 919,272千圓의 18%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이 期間의 補
充金은 朝鮮經濟의 自主的 發展을 沮害하는 植民地政策의 外的 機構인 政治的 暴力組織의
經費 즉 警察 및 軍事費로 使用되었다.

<第18表> 一般會計支出補充金과 그에 의한 事業 單位：千圓

年 度	補 充 金	警 務 及 官 業 費		
		警 務 費	官 業 費	計
1919	—	4,846	24,567	29,408
1920	10,000	16,702	33,570	50,272
1921	15,000	22,754	68,742	91,496
1922	15,600	22,265	57,657	79,922
1923	15,017	21,925	51,241	73,166
1924	15,021	22,402	45,357	67,759
1925	16,544	20,054	86,057	106,111
1926	19,445	19,943	94,264	114,207
1927	15,000	10,199	102,159	112,358
1928	15,000	20,940	111,700	132,640
1929	15,000	21,461	122,930	144,391
1930	15,474	21,132	121,028	142,160
合 計	167,111	224,618	919,272	1,143,890

資料：朝鮮銀行調査課『朝鮮에 있어서의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대하여』, pp. 28~9 및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30年度), pp. 65~7.

2) 公債募集金 및 借入金에 의한 投資

이 時期에 이 經路를 통한 日本資本의 輸入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借入金에 의한
것은 僅少하며 주로 公債募集에 의한 것이었다. 이 時期에도 第1段階에 있어서와 같이
公債募集에 의하여 輸入된 資本은 「道路修築, 海關工事와 鐵道投資 및 改良等」 植民地의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에 投資되었으나 鐵道 建設 및 改良에 주로 投資되었다.

이와같이 이 時期에 있어서도 公債募集에 의하여 輸入된 資本의 投資形態는 前期와 다
른 바가 없으나 이 時期에 있어서의 資本投資節次 및 範圍와 公債募集에 의한 資本輸入과

鐵道投資額과의 相關關係는 前期와는 아주 달랐다.

前期에 있어서는 公債發行에 의한 日本資本의 輸入 및 이 資金의 鐵道에의 投資를 朝鮮總督府가 主管하고 또 그 資本의 投資範圍도 朝鮮內에 局限하였으나 이 時期에 있어서는 公債發行에 의한 日本資本의 輸入은 朝鮮總督府가 行하였으나 그 資本의 投資는 南滿洲鐵道株式會社가 主管하였으며 그리고 朝鮮 및 滿洲를 하나로 하는 日本의 單一植民政策上 그 資本의 投資를 받드시 朝鮮에만 局限하지 않았다. 1917年에서 1925年까지 鐵道委託經營中 “建設 및 改良에 必要한 資金은 總督府의 負擔”으로 하였는데 “兩者經營의 共通의 實을 거두기” 위하여 “建設, 改良, 保存, 運輸 및 附帶業務一切의 經營을 南滿洲鐵道株式會社에 委託”하고 朝鮮總督府는 “年 6%”의 利潤을 受取하는데 不過하였다.⁽⁶⁵⁾

이와같이 이 時期에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의 輸入이 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主管下에 滿洲에도 많이 投資되기는 하였으나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의 輸入과 朝鮮總督府의 鐵道投資額과의 相關關係는 朝鮮에 있어서보다 훨씬 密接하다.

第19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度別 公債發行에 의한 日本資本輸入의 增減과 朝鮮總督府의 鐵道投資額의 增減과의 相關關係는 아주 密接하다. 그리고 이 期間에 年度別 公債增加分の 合計는 263,228千圓이고 朝鮮總督府가 支出하는 年度別 鐵道投資增加分の 合

〈第19表〉 公債에 의한 輸入金과 鐵道投資額 單位：千圓

年 度	公 債 輸 入 金		鐵 道 投 資	
	年 末 現 在 高	每 年 增 加 分	年 末 現 在 高	每 年 增 加 分
1919	119,358	4,436	179,721	15,065
1920	147,518	28,210	199,051	15,858
1921	190,321	42,753	214,906	18,262
1922	227,366	37,025	237,873	21,873
1923	252,105	24,739	254,348	15,280
1924	267,040	4,935	264,655	9,904
1925	283,749	16,709	276,673	11,651
1926	298,755	15,006	294,410	16,638
1927	325,966	27,211	319,700	24,073
1928	353,257	27,291	348,388	27,863
1929	377,136	23,879	371,767	22,931
1930	388,170	11,034	384,246	12,279

註：鐵道投資額의 每年增加分은 朝鮮總督府支出增加分만을 計上하였으므로 鐵道投資額 年末現在高의 增加分과는 약간의 差異가 있다.

資料：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年史』附表 p. 22 및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四十年略史』, pp. 578~9.

(65) 朝鮮總督府, 『朝鮮鐵道四十年略史』, p. 94.

計는 211,577千圓이므로 公債發行에 의한 日本資本의 輸入中에서 鐵道投資가 차지하는 比率은 80%이다. 말하자면 公債發行에 의한 日本資本의 輸入은 鐵道에의 投資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이 期間의 朝鮮鐵道關係支出은 朝鮮鐵道에만 投資된 것이 아니므로 이 期間에 있어서 公債發行에 의한 日本資本輸入額은 263,248千圓으로서 前期의 104,922千圓보다 훨씬 많았으나⁽⁶⁶⁾ 朝鮮內에 投資된 資本은 前期에 比하여 훨씬 적다. 이 期間에 있어서의 鐵道事業內容을 보면 京城驛改築, 鎭海線, 慶全北部線, 平元線, 咸鏡線等과 같은 支線 내지 一部 驛舍의 建設과 圖們線, 惠山線, 滿浦線, 東海線, 慶全線等을 起工 내지 計劃하는데 지나지 못하였다. 營業線增加分은 869.1 km 로서 前期의 그것의 45%에 不過하다. 이와같이 이 期間에는 公債金에 의한 鐵道에 대한 投資額은 前期보다 훨씬 많으나 朝鮮內의 鐵道에 대한 投資額은 前期보다 보다 훨씬 적었다.

3) 社債募集金에 의한 投資

이 期間에 社債發行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 있었던 것은 殖銀社債와 東拓社債였다. 社債募集에 의한 日本資本의 輸入은 이 期間에 있어서 다른 經路를 통한 日本

<第 20 表>

朝鮮殖產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 社債

單位：千圓

年 度	朝 鮮 殖 產 銀 行		東 洋 拓 殖 株 式 會 社	
	年 末 現 在 額	每 年 增 加 分	年 末 現 在 額	每 年 增 加 分
1919	17,500	11,500	65,995	25,000
1920	33,450	15,950	95,358	29,395
1921	49,550	16,100	144,301	48,916
1922	82,550	33,000	141,035	3,266
1923	100,250	17,700	173,448	32,413
1924	118,800	18,550	182,475	9,027
1925	135,976	17,176	177,460	-5,015
1926	144,837	8,861	170,214	-7,246
1927	173,445	28,608	168,237	-1,977
1928	177,223	3,778	—	—
1929	199,685	22,462	—	—
1930	242,158	42,473	—	—

資料：朝鮮殖產銀行, 『朝鮮殖產銀行二十年誌』, p. 236 및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二十年誌』

(66) 前期의 鐵道投資는 公債에 의한 것 외에 合邦以前의 「朝鮮經營費」나 民間投資가 있었으므로 公債額만 가지고 比較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나 公債가 없었던 合邦前의 鐵道投資額이 105,077千圓이고 公債金에 의한 投資가 52,895千圓이므로 이 兩者의 合計額 163,972千圓도 이 期間의 鐵道投資額 211,577千圓에 미치지 못한다.

資本의 輸入보다도 그 額數가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가장 活潑히 展開되었다. 그 理由는 이 期間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事業인 「産米増殖計劃」 즉 「朝鮮米輸出增加計劃」이 主로 朝鮮의 社債發行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 있었던 朝鮮殖産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의 資金에 의하여 遂行되었기 때문이다.

이 期間에 社債募集에 의한 日本資本의 輸入實績을 보면 第20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殖銀債에 의한 것이 242,158千圓이고 東拓債에 의한 것은 1930年에 정확히 얼마나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1931年에 그것이 185,229千圓이므로 1930年의 그것은 180百萬圓程度일 것이므로 兩者를 합하면 약 422百萬圓이 된다. 그러나 東拓의 營業地域은 朝鮮에만 局限되지 않고 朝鮮·滿洲·北部支那 및 南洋等に 걸쳐 있었으므로 東拓의 債券發行에 의한 日本資本의 輸入이 全的으로 朝鮮에만 投下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東拓의 朝鮮內貸出을 가지고 東拓債에 의한 朝鮮의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이라고 보면 第2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7年에 東拓의 貸出中 朝鮮에 대한 貸出分은 貸出總額의 46.4%이므로 이것을 1930年에 適用하여 보면 1930年 東拓債에 의한 資本輸出中 朝鮮에 投資된 것은 약 80百萬圓뿐이다. 그러므로 이 期間에 있어서 社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 즉 日本貨幣資本의 輸入은 319,678千圓 程度이다.

<第21表>

東洋拓殖株式會社 地方別貸付

單位：千圓

地 方	1912年末	1917年末	1922年末	1927年末
朝 鮮	2,402(100.0)	8,268 (79.3)	54,095 (42.8)	52,905 (46.4)
滿 洲	—	2,164 (20.7)	50,194 (39.7)	50,370 (44.2)
北 部 支 那	—	—	11,587 (9.2)	4,141 (3.6)
南 洋	—	—	10,580 (8.3)	6,544 (5.8)
合 計	2,402(100.0)	10,432(100.0)	126,456(100.0)	113'959(100.0)

資料：東洋拓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二十年誌』, p. 26.

社債發行에 의하여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에 의한 事業內容을 보면 東洋拓殖株式會社이건 朝鮮殖産銀行이건 간에 農業에 대한 貸付가 가장 많고 鑛業 및 工業에 대한 貸付가 아주 적다는 點에서는 同一하나 다같이 農業에 대한 貸付가 많다고 하더라도 朝鮮殖産銀行의 貸付는 商業貸付의 性格이 強한데 反하여 東洋拓殖株式會社의 그것은 農業開發貸付의 性格이 強했다. 이러한 點은 農業外的 貸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朝鮮殖産銀行의 境遇는 農業貸付다음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 商業貸付인데 反하여 東洋拓殖株式會社의 境遇는 商業貸付가 거의 없었다. 물론 兩者의 農業貸付內에는 商業的 貸付의 性格을 가진 것이 많이 包含되어 있으므로 東洋拓殖株式會社의 貸付中에 商業貸付가 없었던 것이

아님은 물론이나 朝鮮殖産銀行은 金融業이 主目的이고 東洋拓殖株式會社는 金融業과 植民地的 農業開發業을 兼營하였기 때문에 兩者의 貸付性格에 있어서 位와같은 差異를 結果한 것 같다.

朝鮮殖産銀行의 産業別 貸付狀況을 보면 第22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7年에 農漁業 37.6%, 公共團體 29.6%, 商業 14.2%, 組合 11.4%, 鑛工業 3.1% 및 其他 4.1%로 되어 있다. 公共團體貸付는 “通, 府, 邑, 面, 邑面組合, 學校, 農會, 米穀統制組合, 水産會, 商工會議所, 水利組合等”(67)에 대한 貸付이고 組合貸付는 金融組合聯合會에 대한 貸付이다. 그런데 公共團體貸付 및 組合貸付는 대체로 農業貸付로서 公共團體貸付中에는 水利組合에 대한 貸付가 1927年에 總貸付總額 51,694千圓의 80%인 44,066千圓이고(68) 組合貸付는 農業貸付를 爲主로 하는 金融組合聯合會에 대한 貸付이므로 朝鮮殖産銀行의 貸付中 農業에 대한 貸付는 實際로 貸付總額의 75.7%에 達하게 된다. 이밖에 重要한 貸付는 商業貸付이고 鑛工業에 대한 貸付는 3.1%에 不過하다.

<第22表>

朝鮮殖産銀行 産業別 貸付

單位：千圓

業 種	1 9 2 1	1 9 2 7
公 共 團 體	9,745 (13.2)	51,694 (29.6)
組 合	15,365 (20.9)	19,906 (11.4)
農 業	34,972 (47.5)	64,656 (37.0)
工 業	2,643 (3.6)	5,241 (3.0)
商 業	6,645 (9.0)	24,763 (14.2)
鑛 業	475 (0.6)	140 (0.1)
漁 業	321 (0.4)	993 (0.6)
其 他	3,543 (4.8)	7,179 (4.1)
合 計	73,711(100.0)	174,570(100.0)

資料：朝鮮殖産銀行, 『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 p. 70.

이와같이 朝鮮殖産銀行의 農業貸付는 本來의 農業貸付, 公共團體貸付 및 組合貸付로 構成되어 있는데 本來의 農業貸付에는 肥料資金, 米穀資金, 農業生産道具購入費 및 米穀統制組合等 農産物蒐集機關에 대한 貸付가 많아 商業的 貸付의 性格이 強하며 公共團體貸付에는 “水利組合費, 土地改良資金 및 米穀應急資金”(69)에 대한 貸付가 많아 農業開發的 貸付가 많고 金融組合貸付에도 대체로 商業的 貸付가 많았다. 이와같이 朝鮮에 있어서 資金

(67) 朝鮮殖産銀行, 『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 p. 84.

(68) 前掲書, p. 114.

(69) 前掲書, p. 85.

供給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朝鮮殖産銀行貸付中에⁽⁷⁰⁾ 農業貸付가 壓倒的이고 그리고 그 農業貸付가 대체로 商業的 貸付의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은「産米増殖計劃」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殖銀債에 의하여 輸入된 日本資本이 어떠한 役割을 하였는가를 말하여 주는것 같다.

東洋拓殖株式會社の 産業別 貸付內容을 보면 第23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7年에 農林水産業 67.2%, 運輸交通業 10.2%, 製造業 7.7%, 瓦斯 및 電氣 6.9%, 鑛業 2.5%, 其他 5.5%로 되어 있다. 東洋拓殖株式會社貸付에 있어서도 朝鮮殖産銀行貸付에 있어서와 같이 農林水産業에 대한 貸付가 67.2%로서 壓倒的이며 鑛業 및 製造業의 그것은 겨우 10.2%에 不過하다. 農業貸付中에는 農事經營貸付와 같은 商業的 貸付도 많았으나 土地改良 및 開墾, 水利事業貸付와 같은 農業開發의 貸付와 市街土地建物貸付와 같은 不動産投資業에 대한 貸付가 많았으며 製造業貸付에는 紡織業같은 一般工業에 대한 貸付도 多少 있었으나 대체로 製糖業, 精米業, 釀造業과 같은 農產品加工業에 대한 貸付가 많았다.⁽⁷¹⁾

<第23表> 東洋拓殖株式會社 産業別 貸付 單位：千圓

業 種	1922年末	1927年末
農 林 水 産 業	87,662 (69.3)	76,601 (67.2)
鑛 業	5,559 (4.4)	2,798 (2.5)
製 造 業	7,323 (5.8)	8,765 (7.7)
運 輸 交 通 業	7,025 (5.6)	11,646 (10.2)
瓦 斯 及 電 氣	7,215 (5.7)	7,826 (6.9)
其 他	11,671 (9.2)	6,323 (5.5)
合 計	126,455(100.0)	113,959(100.0)

資料：東洋拓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二十年誌』, pp. 26~8.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社債發行에 의하여 輸入된 日本資本은 貨幣資本 즉 貸付資本으로서 工業 및 鑛業과 같은 實物資本의 輸入을 要求하는 産業에 投資되기도 하였으나 그 量은 극히 적고 주로 農業과 같이 比較的 實物資本을 要하지 않는 産業에 많이 投資됨으로써 農業으로부터 剩餘生産物을 搾取하고 日本의 工產品을 強賣하는 流通資本의 機能을 遂行하였다. 社債發行에 의하여 輸入된 日本資本의 이러한 性格을 이 時期에 있어서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經路中 이 經路에 의한 資本輸入이 가장 많고 또 가장 活潑하였다는 事 實과 더불어 이 時期에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資本이 實物資本의 輸入을 同伴하지 않는 單純한 貨幣的 資本輸入이 많았다는 事實을 뚜렷이 해주고 있다.

(70) 前掲書, p. 192 를 보면 朝鮮殖産銀行貸付가 朝鮮의 總貸付中에 차지하는 比率은 1908年에 87%, 1913年에 45%, 1918年에 52%, 1923年에 45%, 1927年에 51%, 1932年에 48%, 1935年에 58%, 1937年에 47%이다.

(71)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二十年誌』, p. 26.

4) 日本人會社資本에 의한 投資

1920年「會社令」의 撤廢로 이 時期에 있어서 商工業部門의 會社資本이 急速히 成長하여 왔다고 一般적으로 믿어져 왔다. 아닌게 아니라 會社資本統計의 表面的 意味만을 吟味한다면 이러한 믿음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第24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1年末 現在 日本人의 朝鮮本店會社의 總資本金은 334,038千圓으로서 1920年의 그것 199,899千圓에 비하여 67%나 增加하고 있으며 특히 工業 商業 및 農業等を 中心으로 하는 民間資本의 경우는 이 期間에 各各 255%, 103% 및 129%와 같이 急速히 增加하였다. 그리고 會社資本의 産業別 構成에 있어서도 前期에 있어서는 주로 國家資本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保險業 및 運輸倉庫業이 總會社資本中에서 各各 42.4% 및 16.2%에 이르는 壓倒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 時期에 있어서는 民間資本을 中心으로 하는 工業, 商業 및 農林水産業이 總會社資本中에서 各各 27.8%, 17.6% 및 13.4%와 같은 壓倒的 比重을 차지하고있다.

<第24表> 朝鮮本店會社 代表者國籍別 拂入資本金(1931年末現在) 單位:千圓

業 種	日 本 人	朝 鮮 人	外 國 人	合 計 (比率)
金融保險業	65,793	9,014	—	74,807 (19.6)
商業其他	58,622	8,265	—	66,887 (17.6)
工業	89,938	5,808	10,000	105,746 (27.8)
瓦斯 및 電氣	26,936	696	—	27,632 (7.3)
農林水産業	48,138	2,751	—	50,889 (13.4)
鑛業	6,771	50	8,650	15,471 (4.1)
運輸倉庫業	37,840	1,578	—	39,418 (10.4)
合 計	334,038	28,162	18,650	380,850(100.0)

資料: 朝鮮銀行調查課, 『朝鮮에 있어서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대하여』, p. 35.

이와같이 日本人의 朝鮮本店會社資本의 成長은 이 期間에 아주 急速히 나타나고 있었으며 會社資本의 成長을 基礎로 推算한 日本으로부터의 會社資本에 의한 資本輸入도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急速히 增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結論은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극히 皮相的인 結論이며 이 期間에 日本으로부터 資本을 輸入할만한 大企業의 設立은 18個社에 不過하며 그중에서도 10個社는 1927年 以後에 設立된 것으로서 企業設立을 着手하는데 不過하였다. 그러므로 이 期間에 急速한 會社資本增加의 原因은 多數의 中小企業의 設立에 基因하는 것이며 1920年「會社令」의 撤廢以後 1920年 以前에는 「會社令」의 嚴格한 規制下에 會社로서 成立할 수 없었던 多數의 群小資本家들이 合名會社, 合資會社 등

을 設立한데 있다.⁽⁷²⁾

이들 群小資本家들은 거의 日本으로부터 資本을 輸入할만한 能力이 없었던 것이며, 그리고 이렇다할만한 資本도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그들의 “拂入資本金內에는 土地라든가 建物이라든가 혹은 一種의 利權을 그대로 拂入에 充當하는”⁽⁷³⁾ 形便이었다. 이와같이 이 期間에 增加된 會社資本도 植民初期에 「赤手空拳」으로 朝鮮에 浸透한 日本人들이 朝鮮에서 蓄積한 富를 會社資本으로 再投資한 것에 不過하며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리고 1931 年の 日本人支店會社の 朝鮮內投資額을 보면 第25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375 千圓이다. 一般的으로 支店會社の 資本金은 別途로 發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期間에 朝鮮에 進出한 日本人支店會社の 資本이 얼마나 되는가는 잘 알 수 없으나 1931 年の 그것이 겨우 95,375 千圓에 不過한 것으로 보아 이 時期에 日本人支店會社の 進出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日本人支店會社の 資本은 農林水產業에 54.8% 鑛業에 23.9%가 投資되어 食料 및 工業原料의 採取產業에 集中的으로 投資되고 있으므로 資本輸入에 의한 植民經濟의 建設이라기보다 植民地資源의 收奪을 目的으로 하고 있었다.

〈第 25 表〉 日本人支店會社の 朝鮮內投資額 推定(1931年末現在) 單位：千圓

業	種	拂入資本金(比率)
金	融	業 1,840 (1.9)
商		業 6,045 (6.3)
工		業 6,550 (6.9)
農	林	業 49,485 (51.9)
水	產	業 2,755 (2.9)
鑛		業 22,800 (23.9)
運	輸 倉 庫	業 3,600 (3.8)
其		他 2,300 (2.4)
合	計	95,375(100.0)

資料：朝鮮銀行調査課, 『朝鮮에 있어서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대하여』, p. 39.

(72) 朝鮮及滿洲社, 『朝鮮之研究』, p. 248. “이와 같이 朝鮮에는 大規模로 事業을 經營하는 者가 全般的으로 增加하고 있지 않다는 事實을 알 수 있으나 小資本의 合名合資會社만이 過去 10 年間に 1,2 百程度 增加하고 따라서 그 一社當의 平均 拂入資本額이 合資는 半減以下로 되고 合名의 側도 減退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2 千萬圓 및 3 千萬圓의 株式會社가 設立되더라도 그 平均額에는 거의 影響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

(73) 前掲書, p. 249. 1920 年以後 日本에서의 會社資本成長에 대하여 이와같이 論評하면서 筆者는 同書 p. 250 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그리고 朝鮮에 있어서의 事業界의 方向도 앞에 記述한 日本과 거의 같은 狀況으로 統計의 表面으로만 觀察하면 如何히 企業投資가 旺盛하였다 하더라도 그 內容의 空虛함은 이곳에서도 반복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

3. 第3段階 1931~1945

朝鮮經濟의 植民地의 發展의 第3段階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事實은 日本獨占資本 및 國家資本의 積極的進出에 의한 軍需工業 및 社會間接資本의 擴充과 이를 物質的 基盤으로 하는 浪費的 戰爭의 遂行이었다. 그러므로 이 時期에 있어서 日本資本輸入에 主導的 役割을 한 것은 獨占的 會社資本의 進出과 公債發行에 의한 日本資本의 輸入이었으며 朝鮮資本 輸出에 있어서 主導的 役割을 하였던 것은 日本公債買入이라는 朝鮮人的 戰爭負擔이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도 前期와 마찬가지로 補充金에 의한 資本輸入 및 社債募集에 의한 資本輸入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至上目標」를 達成하는데 있어서 副次的 役割밖에 하지 못하였으며 그 額數도 前期보다 훨씬 적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 前述한 것 외에 日本資本輸入의 또 하나의 特徵은 朝鮮經濟의 植民地的 發展過程을 通하여 資本輸入의 主導的 役割을 擔當하여 오던 公債 및 社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이 이제는 資本輸入의 役割을 하지 못하고 第1段階 및 第2段階에서 輸入한 資本의 元利金償還에 汲汲하였다는 點이다. 이 時期에 있어서 東洋拓殖株式會社의 社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出入關係는 잘 알 수 없으나 朝鮮總督府 및 朝鮮殖産銀行의 公社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은 대체로 公社債償還金에 充當되었다. 이러한 現象은 第2段階에 있어서도 어느 程度 表面化되고 있었지만 第3段階에 있어서 露骨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日本植民統治가 20年을 經過하는 사이에 日本資本輸入에 의한 朝鮮의 負債는 累積되고 負債가 累積됨에 따라 日本資本輸入量은 累積的으로 커지고 있었다.

1)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에 의한 投資

<第 26 表>

一般會計支出補充金과 그에 의한 事業

單位：千圓

年 度	補 充 金	警 務 費
1931	15,474	20,301
1932	12,914	19,740
1933	12,854	20,229
1934	12,825	20,334
1935	12,826	20,926
1936	12,918	21,341
1937	12,914	25,280
1938	12,909	25,473
1939	12,904	27,167
1940	14,678	28,541
合 計	143,216	229,332

資料：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은 前期와 마찬가지로 軍事費와 行政費로 構成되어 있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軍事費는 朝鮮總督府特別會計와는 전혀 關係가 없는 것이며, 行政費인 補充金은 第26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3,216千圓으로서 前期의 167,111千圓보다 적다.

이 時期에 있어서의 補充收入과 그의 主要用途인 警務費와를 比較하여 보면 이 期間에 朝鮮總督府가 支出한 警務費는 229,332千圓이므로 補充金은 警務費의 62%에 不過하다. 그리고 이 時期에 있어서는 日本政府一般會計에서 朝鮮駐屯日本軍의 經費로 支出되는 軍事費만을 가지고는 朝鮮駐屯日本軍의 全經費를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朝鮮總督府特別會計에서 日本軍에 대한 軍事費가 많이 支出되었던 바 “1938年 豫算에 있어서는 (日本政府) 一般會計 對 朝鮮總督府特別會計의 關係에 있어서 朝鮮은 補充金收入以上을 臨時軍事特別會計에 轉入”(74)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같이 이 時期에 있어서의 補充金은 朝鮮總督府特別會計에서 支出되는 警務費의 62%에 不過하며 또 軍事費보다도 적었으므로 이 時期에 있어서는 第1段階에 있어서와 같이 補充金이 朝鮮經濟의 植民地的 開發을 爲해서 必要하였던 것이 아니라 日本政府一般會計가 朝鮮總督府特別會計를 支配하고 있다는 植民支配者의 浪費의 虛飾에 不過하였다.

2) 公債募集金 및 借入金에 의한 投資

이 時期에 있어서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은 第1段階와 第2段階의 그것을 합한 것보
 <第27表> 公債에 의한 資本輸入金과 鐵道投資額 單位:千圓

年 度	公 債 輸 入 金		鐵 道 投 資 額	
	年 末 現 在 高	每 年 增 加 分	年 末 現 在 高	每 年 增 加 分
1931	406,996	18,826	406,236	21,734
1932	431,876	24,880	436,048	19,371
1933	473,026	41,150	447,004	20,291
1934	498,803	25,778	467,702	19,589
1935	516,708	17,905	504,820	35,885
1936	549,731	33,023	543,142	36,763
1937	593,646	44,915	612,082	66,789
1938	674,848	81,202	711,098	97,277
1939	803,797	128,949	—	—
1940	964,130	160,333	1,012,055	—

註: 鐵道投資額의 每年增加分은 朝鮮總督府支出增加分만을 計上하였으므로 鐵道投資額年末現在 高의 增加分과는 약간의 差異가 있다.

資料: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40年), p. 138 및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四十年 略史』, p. 579.

(74) 鈴木正文, 『朝鮮經濟의 現段階』, p. 403.

다도 많았다. 第27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0년에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은 964,130千圓으로서 1930년의 388,170千圓을 빼면 이 時期에 있어서의 資本輸入增加分은 575,960千圓이다. 이 時期에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이 이와같이 累積적으로 增加한 것은 1937年 日本獨占資本 大陸侵略擴大로서의 中日戰爭遂行을 爲한 朝鮮 및 滿洲에서의 鐵道延長과 1910年 以後 累積적으로 增加해 온 公債의 元利金償還負擔의 增加에 있다.

이 時期에 있어서도 公債發行에 의하여 輸入된 資本은 주로 鐵道建設 및 改良에 投資되었다. 第27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과 朝鮮總督府 鐵道投資額과의 關係는 그 規模에 있어서나 增減趨勢에 있어서 아주 密接하여 그들간의 相關係數는 크나 이 時期에 있어서도 公債發行에 의하여 輸入된 資本이 전부 朝鮮에만 投資되었던 것은 아니다. 1933年 日本獨占資本의 大陸侵略政策을 統一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北鮮鐵道の 改良 및 建設을 南滿洲鐵道株式會社에 委託함으로써⁽⁷⁵⁾ 朝鮮總督府는 南滿洲鐵道株式會社에 鐵道建設 및 改良費를 支拂하고 南滿洲鐵道株式會社는 그것을 朝鮮 및 滿洲에 걸쳐 投下하였다.⁽⁷⁶⁾ 이와같이 이 時期 특히 1937年 以後의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의 急速한 增加는 滿洲에 있어서의 軍備擴張에 많이 投資된 것 같다.

이 時期에 있어서의 鐵道建設狀況을 보면 平元線, 圖們線, 惠山線等 3大基幹線을 竣工하고 第2段階에 起工된 滿浦線, 東海線, 慶全線等の 建設을 繼續하여 營業線 1,500.8 km의 延長을 보았으며 大陸鐵道와 連結하는 惠長橋 및 凱旋橋等 2大 國際大橋를 竣工하였다.

이 時期에 있어서 鐵道建設의 特徵은 日本, 朝鮮, 滿洲間의 連絡線 및 朝鮮內陸間貫通線의 建設에 置重하고 있는데 이는 分明히 軍事的 目的으로 建設된 것이다.

이와같이 이 時期에 있어서도 前期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朝鮮鐵道の 建設은 公債發行에 의하여 日本에서 輸入된 資本임에는 틀림 없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形式的인 考察이며 그 內容은 그렇지 않았다. 第28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1~1940年間に 公債發行額은 701,902千圓이고 公債元利金償還金인 國債諸費는 294,014千圓으로서 公債償還金은 公債

(75) 朝鮮總督府, 『施政 二十五年史』, p. 812.

(76) 鈴木正文, 『朝鮮經濟의 現段階』, p.398. “昭和 13年度(1938)에 있어서 公債 1億 6百餘萬圓과 같은 것은 반드시 朝鮮만의 事業이라고는 할 수 없고 말하자면 現下의 極東情勢에 順應할 大陸聯絡鐵道の 充實을 朝鮮의 事業으로서 引受한 性質을 띠고있는 것이 많으며 만약 朝鮮總督府特別會計에 의하여 이것이 實行되지 않으면 어떠한 形態로든지 中央(日本政府)이 이것을 實行하지 않으면 안되는 性質의 事業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와같이 1937年 以後 公債發行額의 急速한 增加는 滿洲에 있어서의 軍備擴充에 크게 基因하는 것이다.

發行額의 42%에 達하고 있다. 이 時期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1937年 以後에는 朝鮮鐵道外에 滿洲鐵道建設에 公債發行에 의하여 輸入된 資本이 많이 投下되었으므로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이 대체로 朝鮮內에만 投資되었다고 생각되는 1931~1936年間の 公債發行額과 償還額을 比較하여 보면 公債發行額은 160,634千圓이고 公債償還額은 155,636千圓으로서 償還額은 發行額의 96%에 達하고 있어 公債發行額은 公債償還에 充當되고 朝鮮內의 鐵道建設은 實로 朝鮮의 租稅收入에 의하여 遂行되었다.

<第 28 表> 朝鮮總督府特別會計公債收入 및 國債諸費 單位：千圓

年 度	公 債 收 入	國 債 諸 費
1931	13,500	24,708
1932	23,035	23,090
1933	33,000	24,634
1934	35,479	25,164
1935	24,000	27,027
1936	31,620	31,013
1937	65,000	29,765
1938	106,000	31,709
1939	170,768	35,220
1940	199,500	41,684
合 計	701,902	294,014

註：「公債收入」은 朝鮮總督府特別會計 公債 및 借入金收入이므로 公債收入보다 좀 많은 것이나 이 期間에 借入金收入은 거의 없었으므로 公債 및 借入金收入을 公債收入으로 보더라도 無妨할 것이다.

資料：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3) 社債募集金에 의한 投資

이 時期에 社債發行에 의한 日本資本의 輸入은 이 時期의 다른 經路를 통한 資本輸入과 比較하여 볼 때 그다지 活潑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時期에는 朝鮮殖産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外에도 滿鮮拓殖株式會社, 日本產金株式會社와 같이 社債發行에 의하여 日本資本을 輸入한 特殊會社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들에 의하여 輸入된 資本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上記 兩大會社와 比較하여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時期에는 私債發行에 의한 日本資本輸入은 東洋拓殖株式會社의 경우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다지 活潑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 時期에 있어서 朝鮮殖産銀行의 社債發行에 의한 日本資本輸入狀況을 보면 第29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1~1937年間に 102,469千圓의 資本輸入增加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朝鮮殖産銀行의 資本輸入은 年年 繼續하여 增加했던 것은 아니며 1933年 및 1934년에는

各各 7,511 千圓 및 8,528 千圓의 減少를 보이고 있다. 이는 當年 社債發行高의 減少 및 元利金償還의 增加에 基因하는 것이 아니라 累積되어온 元利金을 償還하기 위하여 發行高는 크게 增加하였으나 發行高의 增加가 元利金償還高의 增加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時期에 있어서 社債發行과 元利金償還과의 關係를 보면 第29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發行高 418,165 千圓, 元利金償還高 315,670 千圓으로서 償還高는 發行高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元利金償還高에 年利 6~7%의 利子支拂을 合하면 元利金償還高는 發行高의 80%를 훨씬 上廻할 것이므로 이 時期에 있어서 社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은 公債發行에 의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資本輸入 純增加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第29表> 朝鮮殖産銀行債券의 增減 單位：千圓

年 度	年 末 現 在 高	每 年 增 加 分	當 年 發 行 高	當 年 償 還 高
1931	247,558	5,400	37,731	32,331
1932	260,993	13,435	19,715	6,280
1933	253,482	-7,511	80,390	87,901
1934	244,956	-8,528	62,315	70,841
1935	278,674	33,718	95,870	62,151
1936	326,231	47,557	97,864	50,307
1937	344,656	18,425	24,280	5,855
合 計	—	102,496	418,165	315,670

資料：朝鮮殖産銀行, 『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 p. 236~7.

이 期間에 있어서 朝鮮殖産銀行의 社債發行에 의하여 輸入된 資本의 投資內容을 보면 第30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9 年에 農業 51.2%, 工業 8.2%, 商業 7.0%, 漁業 7.2%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時期에도 前期와 같이 農林水産業에 대한 貸付가 壓倒的이며 工業 貸付가 약간 增加하고 商業 貸付가 약간 減少하였다. 이와같이 社債發行에 의하여 輸入된

<第30表> 朝鮮殖産銀行 業種別 貸付 單位：千圓

業 種	1 9 3 2	1 9 3 7	1 9 3 9
公 共 團 體	90,666 (33.9)	90,833 (25.0)	28,931 (5.9)
組 合	32,609 (12.2)	48,601 (13.4)	23,999 (4.9)
農 業	96,167 (35.9)	137,514 (37.8)	249,116 (51.2)
工 業	6,176 (2.3)	11,117 (3.0)	39,983 (8.2)
商 業	22,892 (8.6)	42,107 (11.6)	34,133 (7.0)
鑛 業	336 (0.1)	1,498 (0.4)	9,549 (2.0)
漁 業	1,704 (0.6)	2,536 (0.7)	35,228 (7.2)
其 他	17,172 (6.4)	29,490 (8.1)	65,949 (13.6)
合 計	267,722(100.0)	363,696(100.0)	486,889(100.0)

資料：朝鮮殖産銀行, 『朝鮮殖産銀行二十年志』, p. 71 및 朝鮮殖産銀行, 『殖産調查月報』, 1940年 6月號, pp. 30~2.

資本은 매우 商業的 性格이 濃厚한 農業貸付가 支配的이므로 이 經路를 통한 資本의 輸入은 實物資本의 뒷받침이 없는 純粹한 貨幣資本의 輸入이 많았던 것이 事實이나 이 時期에 있어서 朝鮮殖産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의 資本供給內容은 前期와 약간 다른 點이 있었다.

1930年 以後 日本獨占資本이 朝鮮에 積極的으로 進出한 結果 朝鮮의 産業構造가 變革됨에 따라 朝鮮에 있어서 資金供給의 二大支柱를 形成하고 있던 朝鮮殖産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의 資金供給內容도 從前의 農業中心的 資金供給을 止揚하고 工業에 대한 資金供給을 서서히 擔當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貸付內容에 있어서도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이 時期에는 工業에 대한 貸付比率이 약간 높아졌을 뿐 아니라 社債引受에 있어서도 從來 주로 朝鮮金融組合聯合會나 地方公共團體의 債券引受로부터 一般會社債券引受에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⁷⁷⁾ 특히 그들의 資金供給의 質的 變化를 가져오게 한 것은 株式에의 投資였다.⁽⁷⁸⁾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이 時期에 있어서도 社債發行에 의하여 輸入된 資本이 주로 農業貸付에 使用된 것은 事實이지만 1930年以後 積極的으로 進出하기 시작한 日本獨占資本에 대한 資金供給의 相當한 部分을 그들이 擔當하였던 것도 事實이다.

4) 日本人會社資本에 의한 投資

이 時期에 있어서 日本資本輸入의 主導的 役割을 擔當하였던 것은 日本獨占資本의 直接的 進出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이 時期에는 朝鮮總督府關係收入을 除外하고 公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 및 社債發行에 의한 資本輸入도 이 以前의 두 時期에 比하면 活潑히 展開된 것은 事實이나 이들에 의한 新規資本의 輸入은 舊債의 元利金償還에 大部分 充當되고 새로운 資本輸入의 役割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時期에 進出한 日本獨占資本은 上記 經路를 통한 資本輸入보다도 훨씬 많은 資本輸入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朝鮮經濟의 性格에 決定的 變化를 가하였다.

이와같이 日本獨占資本이 朝鮮에 急速하게 進出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理由에 基因한다.

첫째, 1930年代의 恐慌의 結果 日本에서는 過剩資本이 蓄積되어 利潤率이 낮아지고 「重要産業統制法」의 實施로 資本의 自由로운 運動에 많은 制約을 받는데 반하여 朝鮮에서는 土地, 原料 및 勞動이 相對的으로 低廉하여 植民地의 超過利潤의 實現이 可能할 뿐만 아

(77) 朝鮮殖産銀行, 『朝鮮殖産銀行 二十五年志』, p. 144.

(78) 1942年 朝鮮殖産銀行은 朝鮮主要産業資本系中에서 그리고 東洋拓殖株式會社는 日本産業資本의 直接進出中에서 各各 設備資本의 29% 및 11%를 차지하고 있다. (東洋經濟新報特輯, 『年刊朝鮮』 1942年度, pp. 26~7 參照.)

나라 資本의 自由로운 活動이 完全히 保障되어 있었다.⁽⁷⁹⁾

둘째, 1930年代에 있어서 특히 1937年以後 世界大戰準備를 目的으로 朝鮮에 進出하는 日本獨占資本에 대하여 補助金의 支拂, 資金의 支援 및 獨占權을 賦與함으로써 國家的 計劃에 의하여 日本獨占資本의 進出을 積極 獎勵하였다.⁽⁸⁰⁾

이 結果 日本獨占資本은 朝鮮에 積極的으로 進出하게 되었는데 第3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1年의 朝鮮內 日本人本店會社의 拂入資本金 334,038千圓에 대하여 1939年의 그것은 955,803千圓으로서 1931~1939年間に 朝鮮內 日本人本店會社 拂入資本金은 約 3倍의 增加를 보았다.

이 時期에 會社資本의 發展에 있어서 特히 注目할 만한 것은 鑛工業會社資本의 急速한 成長인데 1931年의 會社資本 構成을 보면 工業 35.1%, 鑛業 4.1%인데 대하여 1939年의 그것은 工業 42.3%, 鑛業 17.0%로써 이 期間에 工業資本은 約 4倍 增加하고, 鑛業資本은 約 24倍 增加하였다. 반면 金融保險業, 商業 및 農業은 相對的 停滯를 면치 못하였다.

〈第 31 表〉 朝鮮本店會社代表者國籍別 拂入資本金(1939年末現在) 單位:千圓

業 種	日 本 人	朝 鮮 人	外 國 人	合 計(比率)
金 融 保 險 業	76,705	10,233	—	86,938 (8.0)
商 業	65,724	23,395	30	89,149 (8.2)
工 業	214,505	30,198	200	244,903 (22.6)
電 氣 事 業	213,065	—	—	213,065 (19.7)
農 林 水 產 業	65,249	14,366	—	79,615 (7.4)
鑛 業	168,420	12,449	2,700	183,569 (17.0)
運 輸 倉 庫 業	90,901	7,400	—	98,301 (9.1)
其 他	61,234	24,619	—	85,853 (7.9)
合 計	955,803	122,660	2,930	1,081,393(100.0)

資料: 朝鮮殖産銀行, 『殖銀調查月報』, 1940年 6月號, pp. 35~7.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專任講師〕

(79) 朝鮮工業協會, 『會報』, 1935年 3月號 所載, 「高橋龜吉氏의 朝鮮工業觀」 參照.

(80) 朝鮮工業協會, 『會報』, 1935年 11月號 所載, 「朝鮮에 있어서의 工業의 特性과 그 對策」 參照.